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제1451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檢, 신동빈 회장 주도 M&A 전수조사



롯데그룹의 주요 M&A 단위: 억원

	인수주체 및 인수기업	인수금액
2004년	호남석유화학, KP케미칼	1785
2006년	롯데쇼핑, 우리홈쇼핑	4667
2007년	롯데쇼핑, 빅마트·나이스마트	1000
	롯데쇼핑, 중국 마크로 점포	1615
	호텔롯데·롯데역사, 대한화재	3526
2008년	롯데제과, 길리안	1700
	롯데쇼핑, 인도네시아 마크로	3900
2009년	롯데칠성, 두산주류BG	5030
	롯데면세점, AK면세점	2800
2010년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2740
	롯데쇼핑, GS리테일(백화점 마트)	13000
	호남석유화학, 말레이시아 타이탄	15000
2012년	롯데쇼핑, 하이마트	12480
2013년	호텔롯데, 베트남 레전드 호텔	715
	호텔롯데, 제주 부여리조트	424
2015년	호텔롯데, KT렌탈	10200
	호텔롯데, 더 뉴욕 팰리스 호텔	9000
	롯데케미칼, 삼성 화학 계열사	30000

롯데 횡령·비자금 입증 위해 2004년후 인수합병 파헤쳐
삼일회계·투자은행 전현직 관계자들 잇따라 참고인 조사
수사 장기화 조짐… 그룹, 새 M&A 사업재편 올스톱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주도한 인수합병(M&A)을 전부 수사하고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그룹의 M&A에 관여한 삼일PwC와 투자은행(IB) 전·현직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신 회장이 2004년 정책본부장에 오른 이후 진행된 M&A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혐의가 적용되는 롯데그룹의 M&A 건은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그룹이 2000년대 초반에 진행한 M&A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이후의 기업결합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 회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2012년 두산주류BG, AK면세점, 바이더웨이, CS유통, 하이마트 등을 인수했다.

검찰의 롯데그룹 M&A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 회장의 횡령 배임은 국내기업보다는 해외기업 인수에서 더 큰 규모로 발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외기업 인수는 자료가 까다롭고 방대한 만큼 더 긴 수사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2010년 롯데쇼핑의 중국 럭키파이 인수, 롯데칠성음료의 필리핀 펩시 인수 등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롯데그룹 내 시간도 장기간 멈춰 서 있게 됐다. 검찰 수사로 롯데그룹은 새 기업을 인수할 수도, 사업을 재편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검찰 수사 이후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과 롯데케미칼의 미국 화학회사 인수 계획도 철회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지금 일부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면 먹튀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신 회장을 구명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가 아니라면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본격 휴가철, 인천공항 '인산인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29일 인천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말부터 8월 첫 주까지 휴가객의 46%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인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예상 출국자는 191만8000명으로, 일요일인 31일 인천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다인 19만1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누더기 된 세법개정안… 일몰종료 단 4개

일몰도래 조세항목 21개 연장
대기업 세제지원 오히려 증가
원칙상실 세수확대 효과 미흡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원칙도 없고 단순 미세 조정만 남발해 누더기 세법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몰이 종료된 특례들이 대거 연장되고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원칙과는 달리 우회적으로 대기업 지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후 처음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였다. 또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세법개정안은 이 같은 원칙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감면 항목은 모두 25개였다. 하지만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4개(16%)를 제외하고 모두 일몰이 연장됐다.

일몰이 종료된 것도 보면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로 어차피 활용가치가 떨어진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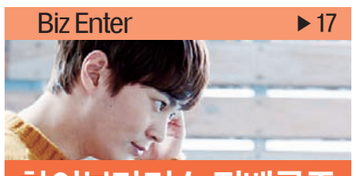
7개 항목은 과세특례가 일부 조정됐으나 14개 항목은 일몰이 단순 연장됐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당초 목표였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근로자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단순히 기간만 연장했다.

또 각종 기업 관련 세금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가뜩이나 누더기가 된 법인세 체계가 더 복잡해졌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도 3000억 원 정도로 1조 원이 넘었던 작년과 비교해 변화의 폭도 작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오히려 늘어났다. 이번에 신설된 문화콘텐츠진흥세제는 대기업도 7% 세액공제를 해주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400만 원 감면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우회 지원이란 해석이다. 곽도흔 기자 sogood@

Biz Enter ▶17



화이브라더스 지배구조



엔터테인먼트 ▶18
하반기 영화 기대작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이완근 회장 ▶12



박광온 의원 ▶15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특임검사, 진경준 구속기소… 김정주도 재판에
〈NXC 대표〉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지 23일 만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위원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넥슨 자금으로 리스한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고, 2010년에는 처남 이름으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진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좌영길 기자 jyg97@

월요일부터 오후 3시30분 증시마감

▶관련기사 3면

채권금리까지 흔든 김영란법

경기위축 우려 안전자산 선호
3년·10년물 금리 역대 최저치

국채선물 일중 차트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채권시장까지 움직였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 인상을 미룰 수 있다는 안도감까지 더해지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채선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련기사 4·5면

28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FOMC 영향에 강세를 보이던 채권시장이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발표된 오후 2시 이후 추가 랠리를 이어갔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은 1.9bp(1bp=0.01%포인트), 4.6bp 하락했다. 각각 1.203%, 1.357%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채선물 시장에서도 3년 국채선물은 7틱(약 3틱=1bp) 상승한 111.18을, 10년 국채선물은 51틱(약 8틱=1bp) 오른 134.03을 보이며 역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것으로 본 결과다. 실제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英 최고 영화제작사〉

'007의 고향' 파인우드도 팔린다

프랑스 사모펀드, 4800억에 인수
英, 브렉시트 여파 기업매각 홍역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또 하나의 영국 기업이 해외로 팔려나간다. 영국 최고 영화제작사인 파인우드 스튜디오스가 프랑스 사모펀드에 매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인우드 스튜디오스의 모회사인 파인우드그룹은 프랑스 사모펀드 PW리얼에스테이트펀드3에 회사를 3억2300만 파운드(약 48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FT는 전했다. 이 사모펀드는 프랑스의 유명 부동산 투자자인 레옹 브레슬러가 운용하고 있다.

파인우드는 지난 1936년 설립돼 무수히 많은 영국 대표작과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작했다. '007 제임스 본드'와 '스타워즈' 시리즈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파인우드의 '007 스테이지'는 세계 최대 스튜디오 중 하나로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제작을 위해 세워졌으며 최신 시리즈인 '스펙터'와 '스카이폴' 촬영 등에도 쓰였다. 파인우드는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도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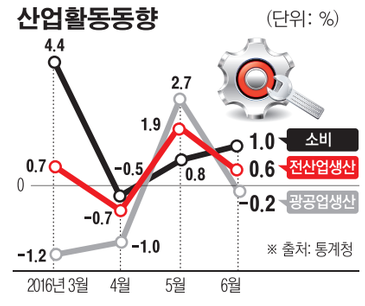
파인우드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막대한 자금 차입으로 위기를 맞자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로스차일드를 주간사로 선정해 매각 등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게 했다.

로스차일드는 180여 잠재적 바이어들과 접촉한 끝에 최종 대상을 선정했으며 파인우드는 이날 주주들에게 매각을 승인할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굿웨더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와 워런제임스홀딩스 등 양대 주주가 파인우드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파인우드는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결정 이후 해외로 팔려나가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된 것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산업생산 2개월째 상승
제조업BSI도 소폭 개선

산업활동동향 (단위: %)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악재를 감안하면 개선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증가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4.5% 늘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기업심리도 넉 달 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72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한 종합 경제심리지수(ESI)도 93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과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 역시 1포인트 오른 93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났다고 진단하기에는 이르다. 수출 부진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와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나타나면서 광공업 생산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3월 1.2%(이하 전월 대비), 4월 1.2% 각각 감소하다 5월 2.5% 증가하더니 한 달 만에 0.2% 감소해 하락 전환했다.

박엘리·남주현 기자 ellee@

R&D 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30%

경제활력 제고

정부가 28일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대내외 악재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서비스업과 신성장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올렸다. R&D 세액공제 대상도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로봇 등 11대 신산업 분야 세부 기술로 재편했다.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도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한도액도 1인당 500만 원 더 올려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200만 원씩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8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기업의 인수합병(M&A) 시 합병 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받아야 과세이연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할 때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고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황 부진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해운사들을 돕기 위해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를 택한 기업이 내년까지 일반 법인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줄 예정이다.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일 권리를 주는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도 연간 1억 원 이하에서 3년간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민정 기자 puri21@

세법 어떻게 바뀌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경제활력 제고 주요 내용
1. 11대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인상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유흥업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
3. 내국법인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법인세 5% 감면
4. 현물출자 과세이연
5. U턴기업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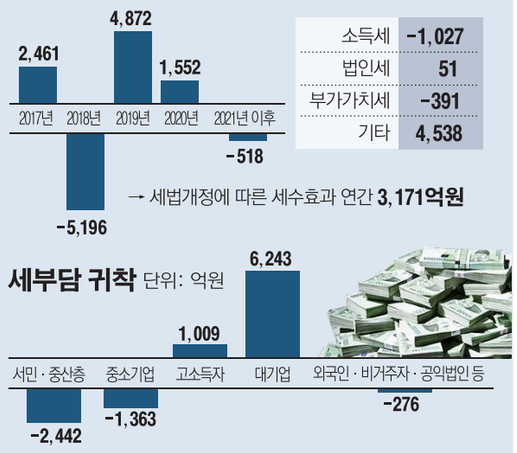
2 민생안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9년 말까지 연장
2.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수준 인상
3. 둘째 이상 출산시 세액공제 확대
4. 월세 세액공제율 10% → 12% 인상
5.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소득세 비과세 2018년 말까지 연장

3 공평과세
1.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2. 코스피200 ELW 양도차익 과세
3. 중고차 거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4. 기업소득 환류세제 임금증가 가중치 강화
5. 배당소득 증대세제 분리과세, 세액공제 전환

4 조세제도 합리화
1.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
2. 협회장외시장 증권거래세율 인하
3.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7% →19%
5. 국외전출세 도입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억원(전년대비 기준)



소득세	-1,027
법인세	51
부가가치세	-391
기타	4,538

→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연간 **3,171억원**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둘째 50만원… 셋째는 70만원 공제

민생안정

정부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일몰을 3년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자녀 출산부터 현재(1인당 30만 원)보다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봉 1억2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 원으로 축소되고, 7000만~1억20000만 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 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든든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매년 갚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급증하고 있는 월세 수요를 감안,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에서 12%로 상향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책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현재보다 10%가량 인상한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 연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택하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도시민이 농촌에 규모가 큰 집을 사더라도 1가구 1주택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시총 15억 이상' 대주주 과세 확대

공평과세

2018년 4월부터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 원(기존 25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 원(기존 20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코넥스시장은 기존처럼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 과세대상이다. 적용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8년 4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에 맞춰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도 기존 2%(2017년 1월1일부터 1%)에서 4%로 축소된다. 이는 중소기업 규모, 코넥스 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4%)을 감안한 것이다.

시가총액은 50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분율은 내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시가총액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이어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도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코스피200 ELW에도 과세키로 한 것은 코스피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도 일부 개선된다. 올해 4월까지 신고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2845개 법인의 환류 금액은 총 139조5000억 원이다.

이 중 투자가 100조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은 33조8000억 원, 임금 증가는 가장 적은 4조800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에서는 임금 증가분을 늘리고자 가중치를 1:1:1에서 1:1.5:0.8로 조정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가 반영된다.

정부는 고배당기업 주주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25% 분리과세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 세액 공제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율이 25%보다 낮은 주주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세액 공제액도 최대 2000만 원까지로 한정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곽도흔 기자 sogood@

국외전출때 주식 양도소득세 20%

조세제도 합리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이 기존 17%에서 19%로 상향된다.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 특례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례를 적용할 때는 비과세·공제·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이며,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다.

기획재정부는 세율을 상향했지만 여전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민 등 국외 전출로 국내 거주 대주주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금융계좌나 국내 소재 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 법인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과세를 기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했다.

외국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액의 3%를 과세하는 것도 이번에 신설됐다.

내년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중열량탄 기준 kg당 24원에서 30원으로 상향된다. 발전용 유연탄은 발열량별에 따라 3단계로 탄력세율이 부여되는데 저열량탄은 21원에서 27원으로, 고열량탄은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올린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청정 발전연료인 LNG와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연간 49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주로 낸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상에 따른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안양 헤븐리치 더퍼스트 294 오피스텔 분양광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안양시 건축과 분양신고 2016-건축과-분양신고-6 (2016.07.28)로 공급 공고
■ 본 건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안양시청2012-건축과-신축허가-5]
■ 분양사업자(건축주) : 코리아신탁㈜ – (110111-2937831) ■ 시공사 : (주)태건종합건설 – (134811-0331067)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4, 88-5, 88-6
■ 대지면적 : 1,110.00㎡ ■ 건축물연면적 : 6,999.41㎡ ■ 공급규모 : 오피스텔 57실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3층(기계식주차장), 지하2층 (주차장/기계실), 지하1층 (주차장/기계실)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4층 (오피스텔 57호실)
지상5층~지상11층 (도시형 생활주택 137세대)

■ 공급면적 (면적단위 : ㎡)

구분	TYPE	호실수	세대별 계약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주차장		
오피스텔	A	45	17.0175	9.7830	26.8005	22.1572	48.9577	6.241
	A-1	12	16.9913	9.7679	26.7592	22.1231	48.8823	6.23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오피스텔 (면적:㎡, 금액:원, vat포함)

타입	해별	층수	세대수	분양대금 D=A+B+C	대지비 A	건축비 B	부가세 C	계약금 10%	중도금 1차(2016.09.10)	2차(2016.11.10)	3차(2017.01.10)	4차(2017.03.10)	5차(2017.05.10)	잔금(40%) 입주지정일
A	17.0175	2층	11	115,000,000	42,509,449	65,900,501	6,590,050	11,500,000	11,500,000	11,500,000	11,500,000	11,500,000	11,500,000	46,000,000
		2층	1	98,000,000	42,509,449	50,445,956	5,044,596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39,200,000
		2층	3	97,000,000	42,509,449	66,194,414	4,953,686	9,700,000	9,700,000	9,700,000	9,700,000	9,700,000	9,700,000	38,800,000
		3층	11	117,000,000	42,509,449	67,718,683	6,771,868	11,700,000	11,700,000	11,700,000	11,700,000	11,700,000	11,700,000	46,800,000
		3층	1	99,000,000	42,509,449	51,355,047	5,135,505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39,600,000
		3층	3	98,000,000	42,509,449	50,445,956	5,044,596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39,200,000
		4층	11	118,000,000	42,509,449	68,627,774	6,862,777	11,800,000	11,800,000	11,800,000	11,800,000	11,800,000	11,800,000	47,200,000
		4층	1	99,000,000	42,509,449	51,355,047	5,135,505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39,600,000
		4층	3	98,000,000	42,509,449	50,445,956	5,044,596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39,200,000
A-1	16.9913	2층	1	115,000,000	42,444,001	65,959,999	6,596,000	11,500,000	11,500,000	11,500,000	11,500,000	11,500,000	11,500,000	46,000,000
		2층	1	98,000,000	42,444,001	50,505,454	5,050,545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39,200,000
		2층	2	97,000,000	42,444,001	49,596,363	4,959,636	9,700,000	9,700,000	9,700,000	9,700,000	9,700,000	9,700,000	38,800,000
		3층	1	117,000,000	42,444,001	67,778,181	6,777,818	11,700,000	11,700,000	11,700,000	11,700,000	11,700,000	11,700,000	46,800,000
		3층	1	99,000,000	42,444,001	51,414,545	5,141,454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39,600,000
		3층	2	98,000,000	42,444,001	50,505,454	5,050,545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39,200,000
		4층	1	118,000,000	42,444,001	68,687,272	6,868,727	11,800,000	11,800,000	11,800,000	11,800,000	11,800,000	11,800,000	47,200,000
		4층	1	99,000,000	42,444,001	51,414,545	5,141,454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39,600,000
		4층	2	98,000,000	42,444,001	50,505,454	5,050,545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9,800,000	39,200,000

■ 공통사항
· 상기 총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타입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기둥이 있는 호수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층별(1층 제외) 복도는 각 용도(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일부공용으로 배분되었고, 이를 제외한 전기실,기계실,발전기실,E.L.V홀, 계단실,주차장 등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전체공용면적에 해당되며, 이는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하게 배분 되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분양신고 후 수리된 분양총액 범위내에서 조정 및 책정한 금액이며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각 용도(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V홀, 계단실 등)은 각 호별로 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전체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중 금회 분양대상은 오피스텔 57실이며 청약 신청시 세부 사항은 분양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방법 및 일정]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분양광고일(2016년 07월 29일)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 및 법인
– 일반분양분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 용
청약일정 및 장소	– 2016년 07월 29일(금) (10:00 ~ 14:00) – 분양사무실 방문 청약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68-8 2층
당첨자 발표일/장소	– 2016년 07월 29일(금) (14:00 ~ 15:00)
당첨자선정 및 층,호수 결정 방법	– 분양사무실내 공개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무작위로 결정함.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선착순방식으로 공급함.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반영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납 부 방 법
		무통장입금
오피스텔	100만원	우리은행 1005-202-951276 (예금주: 코리아신탁(주))

※ 현장 수납은 불가함.–청약금 은행 수납 후 입금증 지참 후 내방

■ 청약신청방법
– 분양사무실 방문 접수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1.청약신청서(분양사무실에 비치) 2.본인 또는 배우자 도장(또는 서명) 3.본인 확인증:주민등록증(본인)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호적등본 등) 4.청약신청금 무통장입금증 5.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거래 은행 계좌 사본(청약자 본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 시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청약자의 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주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감(위임장으로 대체 가능), 위임장(인감있을시는 생략), 인감증명서
법인	1.청약신청서(분양사무실에 비치) 2.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3.사업자등록증 4.청약신청금 무통장입금증 5.청약신청금 환급 받을 거래은행 계좌 사본(청약신청 법인명의)

※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등 관련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분양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일정	환불 방법
2016년 07월 29일(금요일) (15:00 ~)	– 분양사무실 청약 접수자 : 청약접수시 제시한 환불계좌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가능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방법(공통사항)
1) 계약장소 및 납부방법
· 당첨자 계약기간 : 2016년 07월 29일(금) (15:00 ~)
· 계약 체결 장소 : 분양사무실(문의전화 031-464-2008)
· 계약금 납부방법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충,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분	납 부 방 법
	무통장입금
오피스텔	우리은행 1005-202-951276 (예금주: 코리아신탁(주))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충·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합니다.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시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사항
본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법 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모델하우스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2항 규정을 통해 분양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민 · 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주상복합건물로 지상 1층에서 근린생활시설 또한 철도, 도로, 골프연습장이 인접하여 일조환경, 사생활권 영향있고, 소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하는 계약임)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 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준공예정일 : 2017년 09월 예정 ·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17년 10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할인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0.3025)
·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측량 및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 ·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공급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증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이에 대해 민 · 형사 행정상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주상복합건물로 지상 1층에서 근린생활시설 또한 철도, 도로, 골프연습장이 인접하여 일조환경, 사생활권 영향있고, 소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하는 계약임) 또한 이는 추후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해야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분양받은 자의 동의 내지 통지 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주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분양 홍보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 평면도, 배치도와 분양사무실내 전시모형(건축물,조경,시설물,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평가 심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물 및 홍보카달로그, 안내문등에 표기된 도로 등의 주변개발 조성계획 및 각종 공공시설(학교도로망,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판정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견본주택 관람은 A타입에 대해 가능하며, 다른 타입은 전시되어 있지 않으니 견본주택 내 타입 게시물 및 카다로그를 참조하여 확인 후 계약하고 차후 평면 및 기타 재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한 후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안내
본 건축물은 시행 (주)태건종합건설, 수탁자(신탁회사) 겸 분양사업자인 코리아신탁(주) 및 시공사인 (주)태건종합건설 간에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신탁회사)인 코리아신탁(주)가 분양사업자가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라 별도의 신탁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자(신탁회사) 겸 분양사업자인 코리아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하루 최대 6800억 유동성 증가…'박스피 탈출' 묘수 될까

8월부터 주식거래시간 연장



1일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매매시스템·서킷브레이커 테스트 '만반의 준비'

16년만에 시간 변경 하루거래량 284만주→372만주 "어게인 2000" 기대감

아시아 주요시장 마감시간 불일치 해소…역내 유동성 유치 시장경쟁력 제고

내달 1일부터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 정규 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국내 증시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투자자 편의 향상으로 거래량 또한 늘면서 증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거래시간 연장을 앞두고 모의 테스트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증시 활성화 효과 기대… 거래소 "최대 6800억 원 유동성 증대 효과 기대" = 8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 등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과 일반 상품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된다.

국내 증시에서 주식거래 시간이 바뀌는 것은 2000년 5월 점심시간 휴장을 폐지하고 거래 시간을 6시간으로 연장한 것을 마지막으로 16년 만의 일이다.

이처럼 거래소가 무려 16년 만에 거래 시간 변경을 추진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보여온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 시간대의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유동성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 실제 1998년 12월 거래시간 연장 전후 1년간 하루 평균 거래량이 86만 주에서 278만 주로 220% 증가한 바 있다. 또 2000년 5월 거래 시간 연장 전후 1년 동안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284만 주에서 372만 주로 31% 늘었다.

거래소 측은 이번 거래 시간 연장으로 3~8% 수준,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600억 원~6800억 원의 유동성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분석 팀장도 "시간 연장에 따라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거래소가 예상하고 있는 수준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번 결정은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시장과의 중첩 강화를 통해 우리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아시아 주요 시장과의 마감시간 불일치로 본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연동 증권상품의 괴리 수준이 심각해 투자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이번 거래 시간 연장으로 아시아 역내의 유동성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30분 거래 시간 연장' 준비 완료 = 코앞으로 다가온 거래 시간 연장을 앞두고 거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증권사들은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들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의 매매 시스템을 새로운 거래 시간에 맞춰 조정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거래 시간 연장과 관련한 안내 서비스에도 나서고 있다.

증권업계 한 IT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관련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소와 함께 연계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와 코스콤도 증권사들과 함께 거래 시간 연장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장된 종가 시간에 호가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증권사들과 연계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며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 거래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가격 급락 시 정상적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지 등 시스템과 통신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투자자 유의할 점은

시간외 시장 거래는 30분 줄어든대요

전환사채 거래·소액국공채 매수 시간도

다음 달 1일부터 주식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난다. 투자자들은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주식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세부사항이 바뀌는 만큼 이를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매매거래 시간이 연장되면서 서킷브레이커나 사이드카 발동 시한도 변경된다. 서킷브레이커 1·2단계는 기존 오후 2시 20분에서 2시 50분까지로, 3단계 발동 시한은 오후 2시 50분에서 3시 20분까지로 바뀐다.

사이드카는 오후 2시 50분 이후 발동되지 않도록 바뀌고, 사전보고는 오후 3시 15분까지, 사후보고는 오후 4시 30분까지로 각각 30분 연장된다.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해서는 당일 결제증권 결제시간이 4시에서 4시30분으로, KRX금시장 결제시한은 5시로 변경된다.

증권 시간 외 시장은 거래시간을 30분 단축해 전체 증시 마감 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정규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 운영은 2시간 50분(오후 3시 10분~오후 6시)에서 2시간 20분(오후 3시 40분~오후 6시)으로 줄어든다.

채무증권시장에서도 장 종료 후 전환사채(CB) 거래 시간과 소액국공채 매도대행분 매수 시간이 30분 단축된다.

한편 매매거래 시간 연장에 따라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연장 효과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지난 5월 연장안을 발표한 후 관련 규정에 이어 시스템 개발을 마친 상태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장 종료 후 생성하는 데이터를 30분 연장되게 생성해야 하는데 실제 시행 후 유기적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시장선 엇갈린 반응

증권사·거래소 "수수료 두둑이 챙기나" 일각선 "일시적 효과, 지나친 기대 금물"

"1시간 연장 1998·2000년 거래량 껑충"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확대일 뿐" 경계

다음 달 1일 국내 증권·파생·금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이 기존 오후 3시에서 30분 늦춘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이에 증권사들은 내심 수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거래 시간이 길어지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고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우선 시장의 반응을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16년 만의 거래 시간 연장을 증권업계의 긍정적 변화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 방침을 발표한 직후 증권사들의 주가가 즉각 상승세를 보인 것. 발표 당일 유가증권시장 증권지수는 전일 대비 29.28포인트(1.81%) 상승세로 마감했다.

거래소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이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일평균 6800억 원 수준의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거래소는 과거 거래 시간을 한 시간 늘린 1998년 12월과 2000년 5월 이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거래대금이 최소 4%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영 IBK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 시간을 1시간씩 연장했던 지난 1998년 12월, 2005년 5월 이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했다"며 "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증권사 수익은 2.1~7.4%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단순하게 추정해 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수탁수수료 수익 규모가 4조 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억~3000억 원 사이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예상대로 거래대금이 늘어 주기만 한다면 거래대금의 0.0027%를 떼 가는 거래소도 매매수수료를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 거래소가 예측한 대로 거래대금이 최대 8% 증가한다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소가 추가로 벌어들이는 매매수수료는 36억 원가량이다. 코스닥에서는 추가 수수료 수익 26억 원이 예상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 시간 연장이 실제 거래량·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 현재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은 0.08~0.09% 수준으로 1999년 0.3%대에 크게 못 미친다. 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량 증가 효과가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시각을 가진 이들은 과거 두 차례 거래 시간이 늘었을 당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었던 것은 자산시장 변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일 뿐 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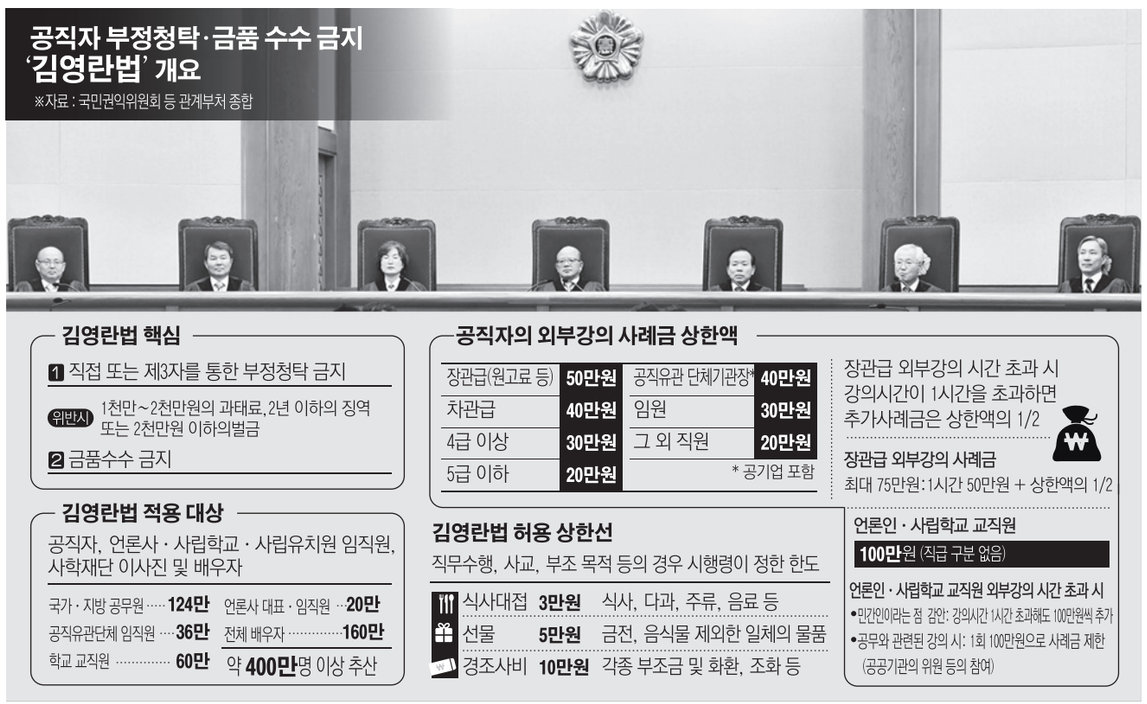
유충현 기자 lamuziq@



김영란법 "합헌"

접대문화 대변혁…한해 11조6000억대 경제 손실은 어쩌나

농축산물·식당·골프장 타격
기재부도 "내수 제약" 우려
장기적으론 부정부패 축소
경제 성장·국가 경쟁력 향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화훼농가, 유통 및 외식업계와 골프 등이 타격을 받을 대표적인 분야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부정부패로 인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문화가 정착돼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8조5000억 원, 소비재·유통업(선물) 1조9700억 원, 골프장 1조1000억 원 등 연간 11조6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조6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예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11조600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6조5000억 원
중소기업중앙회	2조6000억 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	1조1196 억 원
한국농축산연합회	1조 원

대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까지 하반기 경제 제약 요인 중 하나로 꼽을 만큼 김영란법 시행은 단기적으로 내수 위축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음성적인 지하경제가 양성화돼 세원이 투명해지고 부패 수준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 부패를 없애면 소득 재분배로 국민 구매력이 커져 내수 기반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의 청렴도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각국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56점으로 OECD 34개국 평균(67.2점)에 크게 못 미쳤다.

앞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따진 한국생산성본부 역시 부패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내려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신제품 행사 위법… 홍보 포기할판"

재계 대책 마련 부심
접대골프, 공식행사 기준 모호
"특강이라도 들어야 할 상황"

기업들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결정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온 경영활동이 위법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 홍보·대관 담당자들은 헌재 결정에서 배우자 신고의 무나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여부 등 그간의 쟁점에 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나자 "법이 만들어지면 철저히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홍보·대관업무 담당자는 공무원이나 언론인들과 만나는 경영 현장에서 밥값, 술값을 두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업종의 경우 신제품 출시 때 미디어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해온 체험 행사와 전시회 참관 등의 마케팅·홍보 활동도 김영란법으로 보면 위법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접대골프의 경우도 공식 행사라면 허용된다고 하지만 공식과 비공식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처벌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현업에서 대관, 홍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면서 "업무에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 특강이라도 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10월로 잡혀 있던 신차 출시 행사를 추석 전으로 한 달가량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자업계는 해외 대형 전시회가 내년 1월에 예정돼 있어 아직은 시간이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매년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9월 국제가전전시회(IFA)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고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 왔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헌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는데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기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 조항과 시행령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G 임직원들은 사내교육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합헌에도… 국회 법 재개정 작업은 계속

"언론인·사학 교원 빼고 국회의원 포함… 농축수산물 제외"

국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재개정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언론의 자유' 논란이 있는 데다 농축수산물 업계의 타격 등을 고려해 정책위나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배제하는 것과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김영란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만,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여론의 눈치를 봐서 무리한 법률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상당히 무책임한 재판"이라며 "이 잘못된 법은 사실 국회가 만든 거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머지 3개 개정안은 이완영·강석호·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이 김영란법 3년 유예법안을 다음 주 제출키로 하는 등 농어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의중 기자 zerg@



28일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이 쌓여 있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백화점·대형마트 울고 생필품 기업 웃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내수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을 드러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보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가 선물 상품 의존도가 높은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시름이 늘고 있다. 반면 5만 원 미만의 생필품 대기업들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명절 선물세트는 가격이 20만~30만 원대인 고가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명절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우 품목이 이번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받을 것이란 게 백화점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백화점 업계는 올 추석 선물세트 물량에 5만 원 이하 저가 세트를 기존 대비 20~30% 늘려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5만 원 미만 세트가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 측면에서는 5만 원 이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 수요가 많은 정육·수산·과일 선물세트 등은 모두 5만 원 이상이다.

이처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객단가 감소'로 인한 매출 우려가 높은 반면, 생필품 업체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대기업이 수혜를 보고, 소규모 업체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973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가 1973건 적발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 3507명을 적발해 126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은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136건(273명)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등이 적발됐다.

이정필 기자 roman@

식품 허위·과대광고 퇴출… 성범죄 집중 단속

4대악 근절대책 강력 추진
성폭력 예방교육·치안 강화
아동학대 여부 고교생까지

정부가 하반기에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들어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체감도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차단하고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허위·과대광고하는 식품 사범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하반기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하반기에는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에 나서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연말까지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전자발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대상을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해서는 8월까지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만들어 최근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9월까지 '학생 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하반기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대체투자 확대

내년 투자 비중 2~3%P 상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내년 해외·대체투자 비중이 2~3%포인트 올라간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들 투자를 확대해 연금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이 주재하고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협의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까지 2~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28.6%인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내년에 31.3%로 높이고 공무원연금은 33.7%에서 35.9%로, 사학연금은 33.8%에서 36.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21년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40%, 44% 내외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할 전략을 연내에 수립해 실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수익 투자가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각각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학연금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비율을 확대해 전문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김영란법 "합헌"

'5·10·20만원'으로 올릴까 부처별 상향 기준 제각각

시행령 개정때 상한금액 조정할 방침
농축산부·기재부·산자부 등 의견분분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헌재 결정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해 농축산업과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어치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선을 넘는 상품이 많은 한우농가와 음식점, 화훼농가 등의 매출 감소가 예상돼 업계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부의금과 조화 포함)으로 상한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부처들도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일제히 표명하며 각각의 상한기준을 제시했다. 상한금액을 보면 △기획재정부 식사·선물 각 7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해양수산부 식사 8만 원, 선물 10만 원 △중소기업청 식사·선물 각 8만 원 등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향후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약 조정이 안 될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결정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추석, 설 명절 때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영란법이 농축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화토탈 돈 굳었다…390억 법인세 소송 '勝'

"英기업 중간지주사로 주주배당 정당"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깨고 환송

종합 에너지화학기업 한화토탈이 390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프랑스 기업인 토탈 사는 영국 소재 THUK사를 내세워 한화토탈에 투자했다. 한화토탈은 2006~2010년 THUK사의 배당액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산세무서는 프랑스 토탈 사가 한화토탈의 배당 수익자라고 보고 한국·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해 390억 원의 세금을 재산정했고, 한화토탈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THUK 사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 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결론냈다.

좌영길 기자 jyg97@

최재원 SK부회장 출소…법무부, 574명 가석방

회사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최재원(53)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9일 출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부회장을 포함한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했다. 그는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받아 강릉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지난해 최태원(56)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가석방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1년 12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차 구속됐다.

좌영길 기자 jyg97@



내 대학은 내가 홍보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각 대학 홍보를 담당하는 학생들이 개성있는 유니폼을 입고 한 손에는 홍보책자를 들고 미소 짓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알쏭달쏭 김영란법 Q&A

교사가 성적 관련해 학부모에게 5만원 미만 선물 받았다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 형사처벌 대상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사비용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 생활이나 인간 관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항들도 자칫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의 해석을 두고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음은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김영란법 해설서를 토대로 작성한 문답이다.



속인주의·속지주의 적용
외국인도 위반땐 과태료
한국인 해외 나가도 처벌

친족·동창회 장기적 관계
금품제공은 예외로 인정

Q.사립학교 교원, 사보 제작자,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 등에도 적용되나.

A.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 법인, 언론사 등 3만 9965개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각급 학교에, 사보 제작자는 언론사로 각각 포함되며 프로축구 선수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했을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이 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Q.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

A.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Q.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올려줬다면.

A.학교 성적과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다. 아버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부정청탁을 받아준 동료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녀의 경우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Q.국립대 병원 입원 대기자가 접수 순서를 당겨줄 것을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부탁, 원무과장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A.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국립대 병원이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대기자와 대기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친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지자체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처로 전출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로부터 150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면.

A.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초등학교 동창인 제약회사 직원과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초등학교 교사 3명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를 제약회사 직원이 계산했다면.

A.교사와 공기업체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Q.지자체장의 동창이 이 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지자체장 배우자 행사에 후원금을 냈다면.

A.지자체장이 몰랐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Q.공무원이 자녀 결혼 때 초등학교 동창회로부터 회칙에 규정된 경조사비 100만 원보다 많은 250만 원을 받았다면.

A.친족이나 장기적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100만 원을 뺀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동창회 회장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A.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시행령상 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이변없던 BNK… 깜짝실적 JB

BNK 순익 3441억 전망치 부합
JB는 736억 기록… 34%나 늘어

BNK금융지주가 컨센서스(시장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른 지방금융지주의 실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NK금융은 2016년 상반기 3114억 원의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을 시현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당초 계획(2820억 원) 대비 10.43%(294억 원) 초과 달성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5%(80억 원) 줄었다.

BNK금융 측은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주식 매각이익 492억 원 등 지난해 발생하였던 일회성 이익의 소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70%, 9.83%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2%포인트, 2.80%포인트 낮아졌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26%로 전년 대비 0.96%포인트 개선됐다.

자산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대출채권비율은 각각 1.05%와 0.65%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25%포인트, 0.08%포인트 떨어졌다.

그룹 총자산은 104조8947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62% 성장했다.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은 전년보다 11.1%(227억 원) 줄어든 1815억 원, 경남은행은 3.3%(47억 원) 감소한 137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비은행 계열사인 BNK캐피탈은 전년 동기 대비 24.7%(63억 원) 개선된 3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전문가들은 BNK금융의 3분기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6.2% 증가한 161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순이자마진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순이자이익은 전 분기 대비 증가하며,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순이익이 회복되면서 전 분기 대비 증가한다는 예상이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JB금융지주는 2분기 당기순이익이 736억 원으로 1분기 실적(551억 원)과 합산하면 상반기 1289억 원을 시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 늘어난 것이다.

다음 달 9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DGB금융은 당기순이익이 800억 원대 초반으로 형성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상반기로 보면 2000억 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깜짝 실적을 공개한 대형 금융지주사와 달리 지방금융지주들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주력계열사인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최고실적' 신한금융, 굳건한 '리딩뱅크' 비결은…

'최강업무·최대급여' 채찍·당근 안배

'아침 7시~밤10시' 군대식 업무강도
은행원 월급 1000만원 '업계 최고'
1999년부터 '개인성과평가' 도입
은행권서 '유일' 보상 연계시스템

신한금융그룹이 수년간 최고 실적을 유지하면서 신한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999년부터 전 직급 대상으로 '개인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8년간 '성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저성과자는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제한된다.

최근에는 '성과연동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개인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차등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대상 중 성과우수자에게 임금 삭감도 면제한다. 올해 관리자급 이상에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40명 가운데 50명이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나 급증했다.

비은행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순익은 1조4548억 원으로 1위다.

신한은행원은 올 들어 1~3월 석 달간 31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연봉킹'에 올랐다. 월급이 1000만 원을 넘은 셈이다. 금융권 최고대우 연봉으로 인해 '급여부심'(급여+자부심)이 높다는 전언이다. 대신 업무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서 있는 사람 중 가운데)과 유주선 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스마트워킹강남센터 내 사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실제로 신한은행 임원 전원은 오전 7시면 출근을 완료한다.

상사가 일찍 출근하니 부하직원들도 이른 시간 나오는 편이다. 야근도 많아 신한은행원들은 보통 밤 10시가 다 돼야 퇴근한다. 게다가 영업실적 부진 지점으로 꼽히면 실적부진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오전에 30~40분, 일 마치고 업무와 별도로 3시간씩 보수교육까지 받게 된다.

신한은행 임원은 해외출장을 못 간다.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임원 간 역할 분담이 정확해 출국하면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한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일할 정도라고 전해진다.

2010년 12월 신한은행장에 선임돼 연임에도 성공, 4년 넘게 신한은행을 이끌면서 신한금융지주 회장까지 유력했던 서진원 전 행장이 지난 22일 혈액암으로 숨을 거두자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은행을 업계에서 '심한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신한은행도 변화를 모색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킹센터 △자율출퇴근 등 스마트근무제를 시작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이날 월례조회를 통해 "스마트근무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창의와 행복으로 미소 짓는 따뜻한 신한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KEB하나銀 '디스커버 서울 패스' 판매



KEB하나은행이 서울시에서 출시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인 '디스커버 서울 패스'를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판매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가장 많은 환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KEB하나은행은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독점 판매은행으로 지정됐다. 디스커버 서울 패스는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이 출시한 외국인 전용 1일 관광 티켓으로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고 서울시 내 고궁, 미술관, 한류체험관 등 16곳의 유료관광지 입장도 가능하다.

하나銀 '일임형 ISA' 내달 중순으로 출시 연기

KEB하나은행이 오는 8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를 시작한다.

하나은행은 29일 다음 달 중순께 일임형 ISA 출시를 위해 모델포트폴리오(MP) 점검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하나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일임형 ISA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순연됐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은 4월 11일부터 일임형 ISA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옛 외환은행과의 정보기술(IT) 시스템 통합 이후로 일임형 ISA 출시를 미뤄왔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7일 옛 외환은행과 통합한 새로운 IT 시스템을 선보인 후 일임형 ISA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계휴가 절정인 시점인 만큼 마케팅적인 요소를 고려했다"며 "상품 구성, 전산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출시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ISA다모아 비교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부터 일임형 ISA를 판매한 9개 은행의 모델포트폴리오(MP)별 평균 수익률은 0.37%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의 '고위험 스마트 모델포트폴리오'가 지난 3개월간 2.05%의 수익률로 최고를 기록했다. 은행 중 2%대의 수익률을 낸 것은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장효진 기자 js62@

前 감사원 국장 이어 이번엔 금융위 출신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절반이 '관피아'

라이나생명이 최근 5개월 사이 사외이사의 절반을 금융당국과 감사원 고위 간부로 채워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25일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인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라이나생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 후보를 사외이사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대규 사외이사 후보는 보험업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금융 관료로 손꼽힌다. 최근까지 금융사 제재 심의 역할을 하는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성 후보는 2009년~2012년 금융위 은행과장과 보험과장을 지냈다. 2012년 8월~2014년 7월까지는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당시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보험업법의 최초 입안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다.

성 후보를 사외이사에 추천한 라이나 홍 대표이사는 추천 이유서에 "(성 후보는) 보험, 은행 등 금융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장기간의 실무 경험으로 그 전문성이 인정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라이나생명이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대외 로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3월에는 박의명 전 감사원 국장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로써 라이나생명은 사외이사 총 4명 가운데 2명을 금융위와 감사원 고위간부를 지낸 관피아 출신으로 채우게 된다.

한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금피아, 감피아 등 고위 관료들로 채우는 것은 금융업계 전반에 퍼진 고질적인 문제"라며 "라이나생명이 추후 이들을 금감원 제재 등에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글로벌 에너지 화학 기업 SK 이노베이션 |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인천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에너지 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1. 지구 곳곳에서
솜은 원유를 찾아내고

2. 세계적인
에너지 화학 제품을 만들고

3. 세계적 기술의 윤활유와
전기차 배터리로

4. 수출강국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라이브 드로잉 아티스트
김 기 리

자신QR코드를 스캔하시고
[SK이노베이션X김정기]
라이브 드로잉을 감상하세요

LG의 고민 "가전 대박인데, 스마트폰은…"

프리미엄 가전 사업 호조에 2분기 영업익 5000억 달성
모바일 1535억 적자 "G5 부진, 실적개선 제한" 평가도
3분기엔 V10 후속 모델·X시리즈 지역 확대 보급형 집중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 사업의 호조로 2분기 연속 영업이익 5000억 원을 달성했지만, 스마트폰 사업이 적자를 지속하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LG전자는 28일 실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4조29억 원, 영업이익 5846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139.5%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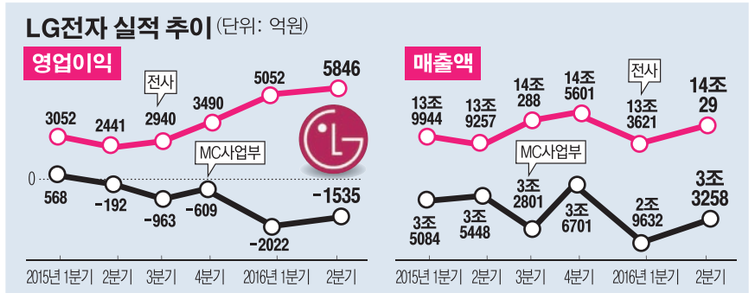
가전 사업이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2분기 연속 9%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지만, 스마트폰 'G5'의 부진으로 제한적인 실적 개선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G5는 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6'에서 공개되며 상당한 관심을 모은 모듈형 스마트폰이다. 초기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며 LG전자도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판매량 저조로 MC사업부는 153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4분기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2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1분기보다 적자폭이 다소 줄었지만 하반기 실적도 불투명한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메탈과 모듈 방식이라는 것을 동시에 적용, 초기 반응이 좋았지만 그 모멘텀을 판매 확대로 잇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며 "G5를 토대로 신기술·신공법 관련 선행 검증을 거친 만큼 향후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출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3분기에도 경쟁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다. 회사 측은 "오는 9월 V시리즈 후속 모델을 출시하고,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X시리즈 등 보급형 신모델의 출시지역을 확대하는 등 매출 극대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구조와 제품 효율화로 경쟁력 있는 원가 구조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수시 조직개편을 통해 PMO를 신설, G/V시리즈를 전담하는 총괄책임 운영체계로 전환해 개발·구매·생산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유통과 영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MC한국영업FD를 한국영업본부로 통합했다.



이날 LG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OLED 패널을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LG전자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형 OLED 분야에서도 적극 대응해 진입할 계획"이라며 "TV에서 OLED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중소형에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1390만 대로 전 분기(1350만 대) 대비 3%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1410만 대)에 비해서는 1% 감소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정용진, 코엑스몰 품었다



〈신세계그룹 부회장〉

현대百·애경 입찰 포기에 우선협상자로 선정
신세계百 강남·스타필드 하남 잇는 '강남벨트'

서울 강남 코엑스몰이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품에 안기게 됐다. 정 부회장은 코엑스몰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오는 9월 개점 예정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을 잇는 '강남 벨트'의 연결고리로 삼을 계획이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과 칼트몰 임차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단독 입찰에 나선 신세계프라퍼티가 29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코엑스몰 및 칼트몰 임차운영사업은 임대면적 5만8938㎡(1만7828평), 327개 매장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임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10년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세계프라퍼티와 한국무역협회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사와 협상을 한 뒤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정식계약을 체결하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존 임차인들의 현재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며 "코엑스몰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엑스몰이 위치한 삼성동 일대는 서울 최대의 MICE·업무 복합 상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제업무교류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코엑스-현대차부지-잠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입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신세계그룹은 서울 중심에 대형쇼핑몰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복합쇼핑몰 사업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스타필드 하남 등을 통한 복합쇼핑몰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사업총괄 임영록 부사장은 "8월 중 코엑스몰 임차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코엑스몰, 그리고 9월 초 오픈예정인 스타필드 하남으로 이어지는 강남권 벨트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세계그룹 유통 노하우와 신세계프라퍼티의 부동산 개발 및 운영·관리 능력을 더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엑스몰 위탁운영권 입찰에는 당초 현대백화점과 애경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회사는 응찰하지 않고 신세계프라퍼티만 단독 응찰했다.

이선애 기자 lsa@

적자폭 줄인 삼성SDI "하반기, 배터리에 집중"

1회성 비용 줄이며 경영효율화 결실
중대형전지, 전기차배터리 확대 나서

삼성SDI가 지난 1분기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며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삼성SDI는 하반기 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대비 시설투자를 늘리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조기 흑자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28일 매출 1조3172억 원, 영업적자 542억 원의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 분기 경영효율화를 위한 1회성 비용 지급에 따른 7038억 원의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

당기순이익은 케미칼사업 지분매각 처분이익 등의 영향으로 9558억 원 흑자를 달성했다.

소형전지사업은 2분기 원형·폴리머 배터리를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개선됐다. 원형은 전동공구 수요 증가로 견조한 매출을 이뤘고 폴리머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증가 효과가 반영됐다.

하반기 소형전지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성장한 29억 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전동공구·전기차 등과 같은 비(非)IT 중심의 원형전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형전지사업은 2분기 전기차 배터리와 ESS의 판매가 확대됐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용 판매는 감소한 반면 유럽용은 판매가 확대됐다. ESS는 가정용과 전력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다만 업계는 중·대형전지사업에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4% 성장한 13GWh, ESS 수요는 약 69% 성장한 1.8GWh로 전망된다. 삼성SDI는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는 유럽계를 중심으로, ESS는 전력용을 중심으로 매출을 늘릴 계획이다.

전자재료 사업은 2분기 PV 페이스트 시황 호조 속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편광필름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매출 성장을 이뤘다.

삼성SDI는 하반기 반도체용 신규 소재를 판매하고 중국용 편광필름, 신규 플랫폼 OLED 제품 판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KT '어닝 서프라이즈'… '황의 마법' 통했다

2분기 영업익 4270억 15.8% 껑충



KT가 4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4000억 원을 넘겼다.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 황창규〈사진〉 회장의 경영 노하우가 이동통신 시장에도 통했다는 평가다.

KT는 2분기 영업이익 42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5조67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다.

무선사업 매출은 가입자 증가 및 롱텀에볼루션(LTE) 보급률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한 1조8801억 원을 기록했다. 무선 가입자는 2대 이상 단말기를 보유하는 추세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번 분기에만 약 20만 명 증가했다. 2분기 LTE 가입자는 1361만 명으로 전체 무선 가입자의 74.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매출(ARPU)은 3만 6527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선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조2862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가인터넷 가입자 증가로 2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현재 기가인터넷 가입자는 173만 명으로, 올해 목표인 200만 가입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콘텐츠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성장한 4709억 원을 기록했다. 인터넷(IP)TV 사업에서는 2분기 14만 명의 가입자 순증을 달성했다. 금융사업 매출은 BC카드 매출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8576억 원을 기록했다. 기타서비스 매출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및 솔루션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성장한 5464억 원을 올렸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KT가 보유한 기가 인프라, 융합 서비스를 바탕으로 IoT, LTE-M, 기업전용 LTE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서울키덜트페어' 화면 속 멋진 캐릭터 모였다



'2016 서울키덜트페어'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관람객이 스타워즈 캐릭터를 살펴보고 있다.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서울키덜트페어는 피규어, 커스텀피규어, 미니어처, 드론, 디오라마, RC모형, 다이캐스트모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이 마련됐다. 전통 한복(생활한복 제외)을 입거나 풀 코스프레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전시회 기간에 KTX 티켓을 소지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SKT, 플랫폼기업 가속… 내달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개방

서비스 무료화로 사업군 확대 노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정부의 불허로 무산됐지만, 차세대 플랫폼 회사로 전환한다는 기존 전략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도와 통화 플랫폼에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전면 개방한다.

황근주 SK텔레콤전략기획부문장은 28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CJ헬로비전과의 M&A가 무산됐지만, 차세대 플랫폼 회사로 변신한다는 큰 전략은 변화가 없다"면서 "생활가치·미디어·사물인터넷(IoT)·교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환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전면 무료화도 약속했다. 플랫폼 서비스 가입자를 늘려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SK텔레콤은 'T맵'과 'T전화'를 타사 이통사 가입자에게 연이어 무료 개방했다. 또 다음 달에는 타사 고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클라우드베리'를 출시하고, 기존 'T클라우드'는 연말께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황 부문장은 "이용자 모집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머물지 않고 고객의 생활 전반에 가치를 부여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8일 'T맵'을 무료 공개하며 50만 명의 타사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T맵 개방을 통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타 서비스와 연계된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한미약품, 2분기 나홀로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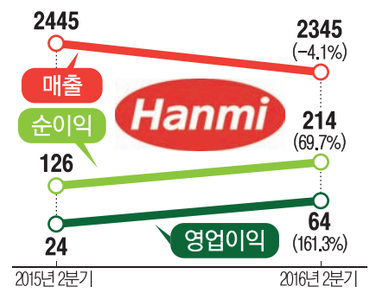
주요제약사 일제히 실적 악화인데, 영업익 161.3%↑
지난해 기저효과에 기술수출·지분매각 차익 반영도

연구개발(R&D)비 상승으로 주요제약사들의 2분기 실적이 일제히 악화된 가운데, 한미약품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한 성적표를 받았다. 한미약품의 실적 증가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사노피 기술수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지분매각 차익 반영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은 2분기 연결회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1.3% 증가한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28일 잠정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7% 증가한 214억 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4.1% 감소해 2345억 원을 달성했다.

한미약품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낮은 영업이익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한몫했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사상 최대 규모인 481억 원(매출 대비 19.7%)을 R&D에 투자했고, 메르스 영향에 의한 국내영업 부진 등으로 영업이익이 24억 원에 그쳤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당뇨 신약인 '퀀텀 프로젝트'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에 39억 유로(약 5조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미약품은 올해 2분기 사노피로부터 기술수출 라이선스비로 213억 원의 비용을 지불받았고, 이 금액은 영업이익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6월 2대 주주로 있던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지분 5.03%를 전량 매각해 얻은 시세차익의 금액(140억 원)은 순이익에 반영됐다.



김현태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발생한 대규모 기술수출에 따른 높은 기저효과 때문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태평양서 아프리카까지… 세계로 나는 LCC

이스타·제주항공 '얼라이언스' 가입… 진에어는 '인터라인' 체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글로벌 노선을 촘촘히 확보하며 전 세계를 점령하고 나섰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호주와 하와이까지 이어지는 태평양 네트워크를 채워가며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세계 최초로 출범된 아태지역 LCC 얼라이언스인 'U-FLY(유플라이) 얼라이언스'에 28일 가입했다. 지난 1월 설립된 유플라이는 홍콩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4개 주요 항공사인 홍콩 익스프레스, 럭키에어, 우루무치에어, 웨스트에어가 회원사로 있다. 이번 합류로 이스타항공은 유플라이가 보유하고 있는 95대의 항공기와 170여 곳의 노선을 공유하며 중국·홍콩 등 노선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됐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5월 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7개 LCC와 함께 '밸류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제주항공은 밸류 얼라이언스 LC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들이 취항한 160개 도시를 누비며 중동, 아시아, 태평양, 호주 지역 등의 노선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자체적으로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하와이 전체 노선 강화를 위해 이 지역 여러 섬 곳곳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 중인 하와이 지역항공사 '아일랜드항공'과 인터라인 계약(양사 노선 연계)을 체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롯데그룹, PB시장에 도전장 '피코크' 맞서 '초이스 엘 골드'

상품기획부터 생산까지 계열사간 협력
'강레오 쉐프의 찌개라면' 등 10종 내놔
신세계는 하반기 고급 식품브랜드 계획


롯데의 판매 직원이 프리미엄 통합 브랜드인 '초이스 엘 골드'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롯데그룹이 자체 브랜드(PB) 출시로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서면서 신세계와 정면 승부한다.

28일 롯데그룹은 프리미엄 통합 자체 브랜드 '초이스 엘 골드'를 출시했다. 초이스 엘 골드는 상품 기획부터 제품 생산까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등 롯데 유통사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 등 제조사가 협력해 만든 브랜드다. 이 브랜드로 선보이는 상품은 '강레오 쉐프의 찌개라면'을 비롯해 파스타, 그릭 요거트 등 10종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치즈케이크, 인스턴트 커피 등 제품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롯데그룹이 PB상품을 내놓은데는 최근 국내 PB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연관돼 있다. PB상품은 기존 제품과 품질에 차이가 없고,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세계 이마트의 피코크가 성공한 PB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마트 피코크는 2013년 340억 원대였던 매출이 2014년 750억 원, 지난해 1270억 원으로 뛰었다. 올해 매출은 1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코크의 성공으로 신세계는 오는 8월 말이나 9월 중 새 식품 브랜드를 출시하고 프리미엄 HMR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피코크보다 가격과 품질을 높여 고급화한 동시에 할랄 인증 작업으로 해외 진출을 노릴 계획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존 PB 상품에서 차별화된 고급 PB상품의 수요를 잡기 위한 롯데와 신세계 경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볼케이노' 폭발…치킨업계 초긴장

굽네, 출시 6개월만에 550억
숯불 바비큐+매콤 맛 '중독성'
콜라보·레시피 마케팅 효과도

BBQ 무리한 해외진출에 흔들
하반기 시장 판도 변화 예고



굽네치킨의 '굽네 볼케이노' 열풍이 뜨겁다. '치킨업계 허니버터칩'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을 정도다. 이 기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면 국내 치킨 시장의 순위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29일 굽네치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시된 '굽네 볼케이노'가 출시 6개월 만에 판매액 550억 원을 돌파하며, 치킨업계 매운맛 치킨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이 같은 열풍이 어이질 것으로 보여 의미있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굽네 볼케이노' 성공 뒤에는 상품 개발팀의 노력과 탁월한 마케팅 기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굽네 볼케이노'는 굽네치킨 상품 개발팀의 김보경 대리(35·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김 대리는 '맛은 추억과 관련이 있다'는 식품업계 통설에 따라 학창시절 숯불 바비큐를 즐겨 먹었던 것을 떠올려 이를 제품에 반영했다.

상품 개발팀은 오븐구이가 바비큐 치킨 맛을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차별화된 매운 맛을 담기 위해 하루에 약 10마리가 넘는 닭에 소스를 직접 바르고 구웠다. 맵지만 자꾸 먹고 싶은 감칠맛을 구현하기 위해 1년간 개발한 끝에 지난해 12월 '굽네 볼케이노'가 탄생했다.

이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젊은 층이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신경을 썼다. 이를 주도한 이는 CJ제일제당 마케팅팀에서 작년 굽네치킨으로 자리를 옮긴 박상면 상무다. 그는 다른 식품 브랜드와 한계를 두지 않는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레시피 등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플랫폼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기세를 몰아가기 위해 지난 3월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엑소를 전속 모델로 발탁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는 작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매출액 기준으로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2634억 원, 제너시스비비큐(BBQ) 2158억 원, bhc 2043억 원, 지앤푸드(굽네치킨) 984억 원, 혜인식품(네네치킨) 610억 원 등 빅5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굽네치킨과 bhc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과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BBQ로 인해 올해 시장 판도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치킨업계 매출·규모 측면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던 제너시스BBQ는 무리한 해외 진출 투자가 발목을 잡아 2012년 적자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교촌치킨에 1위 자리까지 내줬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모델로 배우 전지현을 내세운 bhc와 가수 엑소를 발탁한 굽네치킨의 돌풍이 계속되면서 연말 국내 치킨 시장의 순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선애 기자 lsa@

#여름휴가 #호텔 #럭셔리 #자연경치 #힐링…

해외 리조트 안 부러운 '인피니티풀'

수면이 수평선까지 연장되는 듯 착시
'켄싱턴 제주' SNS 타고 젊은층 화제

신세계도 9월 '스타필드 하남'서 오픈
어린이도 함께 이용하는 가족형시설


켄싱턴 제주 호텔의 '스카이피니티' 풀은 루프탑에 위치해 제주의 푸른 바다와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 제주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이다. 사진제공 켄싱턴 제주 호텔

'인피니티풀'에 대한 소비 수요가 치솟은 가운데, 성인 전용 공간으로 각광받던 호텔 부대시설에서 워터파크의 가족형 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피니티풀(Infinity Pool)은 수면이 수평선까지 연장되는 듯 설계돼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지난 6월 93%의 투숙률을 달성, 2014년 6월 오픈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에도 93%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의 배경 중 하나로 SNS 활동이 활발한 젊은 고객층 중심으로 화제를 모은 인피니티풀의 영향이 크게 기여했다고 호텔 측은 분석한다.

오정국 켄싱턴 제주호텔 마케팅 팀장은 "트렌드에 민감한 2030 세대들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라 최근 켄싱턴 제주호텔의 주고객층의 유입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9월 오픈하는 교외형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에도 인피니티풀이 들어선다. 성인만이 아닌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시설인 점이 특징이다.

스타필드 하남 건물 상부에 들어설 약 4000평 규모의 '아쿠아필드'는 인피니티풀, 실내 워터파크, 스파 등으로 구성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다양한 실내 풀과 경치를 조망 가능한 야외 인피니티풀 조성으로 여타 워터파크와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매장에 걸린 티셔츠, 집에서 보고 사세요"

더현대닷컴 'VR스토어' 오늘 오픈
3차원·360도로 둘러보며 상품쇼핑
"온·오프 잇는 새 O2O서비스 시도"



더현대닷컴은 'VR스토어'를 판교점 5층에 위치한 나이키, 아디다스 매장에 우선 도입한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의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이 집에서도 실제 백화점 매장을 둘러보는 것처럼 쇼핑할 수 있는 'VR(가상 현실)스토어'를 29일 오픈한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VR 기술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R스토어는 백화점 매장에 VR 기술을 적용한 가상의 백화점이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 사진과 글을 중심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VR스토어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그대로 옮겨와 고객이 백화점에 와서 직접 쇼핑하는 것 같은 현실감 있는 매장 진열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 방법은 더현대닷컴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 VR스토어에 들어가면 된다. 사이트 접속 후 VR기기를 연결하면 매장 전경을 3차원으로 볼 수 있고, 360도로 매장을 둘러볼 수도 있다.

또 VR화면에 있는 화살표를 응시하면 매장을 이동할 수 있고, 제품을 보면 제품명 등 간단한 제품 정보도 알 수 있다. 하반기 중에는 VR기기에서 바로 '관심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더현대닷컴 관계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O2O서비스의 새로운 시도"라며 "현실감 있는 매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매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유동성 확보하자" 집 내놓은 건설사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삼성 서초사옥 B동 매각 방안 검토
대형 건설사, 해외사업 수주 반토막 나자 재무건전성 대비
시장 반응은 미지근… 2분기 빌딩 거래 6400억 40% 하락


포스코건설이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송도사옥.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옥 매각에 나서고 있다. 알짜 지역에 위치한 매물들이 대부분이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사옥 매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포스코건설은 최근 송도사옥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설립했던 특수목적법인(SPC) 피에스아이비의 3567억 원 규모 채무를 전액 인수했다. 이 채무는 포스코건설 사옥 건립사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발생한 것으로 포스코건설은 회사 보유현금 등을 통해 3567억 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송도사옥에 대한 소유권도 포스코건설로 넘어온 만큼 포스코건설은 송도사옥 매각으로 채무 상환 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옥 매각 방식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방식이 유력한데 다른 건설사들도 사옥을 매각한 후 기존 사옥이나 다른 사옥에 전세로 들어가며 유동성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2013년 도이치자산운용에 신문로 사옥을 3900억 원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1000억 원을 웃도는 매각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GS건설도 남대문 사옥을 베스타스자산운용에 1700억 원에 팔았다. 현재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을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랑서울도 GS건설의 소유였지만 국민연금에 1조2000억 원에 매각하고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두산건설도 논현동 사옥을 1440억 원에 매각했고 SK건설 역시 관훈동 사옥을 매각하며 두둑한 현금을 챙겼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한화건설이 서소문사옥을 하나자산운용에 360억 원에 매각 한 바 있다.

여기에 시평순위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올 상반기 중 판교 알파돔시티로 이사했다. 그룹 차원에서 사옥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부문이 입주했던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 B동을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케이스다. 2011년까지 사용하던 삼성동 아이파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임대를 주고 용산 아이파크몰로 이사를 했다. 외형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몰에 임대료를 주는 모양새지만 아이파크몰이 현대산업개발의 100% 자회사로 사실상 자사 소유인 셈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사옥 매각에 나서는 것은 결국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주택시장의 호조세로 실적은 나아지는 모양이지만 대형건설사들의 주 수입원이던 해외건설 부문 수주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다.

문제는 최근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원활하게 매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분기에 총 6398억 원의 거래 규모로 6개의 오피스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40% 이상 하락한 규모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관계자는 "대부분 재무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업의 전략적인 이유로 인한 사옥 매각의 거래가 주를 이뤘다"면서 "브렉시트로 촉발된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투자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집값 꺾인 TK,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대구, 경북 등 올 들어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29일 부동산114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수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경북 지역이 33.6%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18.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 상반기 경북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 수는 101건으로 지난 한 해 가입 건수인 79건을 넘어섰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대구(27.2%)다. 올 상반기 신규 가입 건수는 324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327건)에 육박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울산(26%), 경남(25.4%), 충북(25.1%)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제주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율은 각각 15.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반대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대구와 경북은 각각 2.02%, 1.30% 내려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서울과 제주는 각각 1.83%, 1.73%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대구, 경북 등 아파트값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세가 뚜렷한 것은 고점에 다다른 주택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한 현시점을 주택연금 가입의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중도금 대출 규제 '풍선효과' 현실화… 다산신도시 청약 '256 대 1'

강남 재건축시장 겨냥 조치
다른 지역 수요자 팽창 초래

정부의 중도금대출 규제가 비강남권의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강남권의 팽창을 누르기 위해 정부가 또 다른 규제책을 꺼낸다면 자칫 과거처럼 주택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다산신도시 유승한내들 골든뷰'의 1순위 청약에서 전체 262가구 모집에 총 1만2611명의 청약자가 몰려 최고 경쟁률이 256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높은 청약경쟁률은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8일 경기도 미사강변도시 '하남미사 신안 인스빌'이 평균 77.54대 1의 청약경쟁률로 미사강변도시 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도 세종시 역대 청약경쟁률 중 최고인 201.71대 1을 나타냈다. 비슷한 시기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역시 54.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서울 흑석 뉴타운 7구역 '아크로리버하임'도 올해 수도권 최고인 평균 89.45대 1로 청약이 마감됐다.

업계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분양 열기를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수요자들의 돈줄을 막는 압박조치인 만큼 비강남권의 수요자 팽창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실상 강남 재건축시장을 겨냥하는 조치인데 결국 이는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를 집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은 이미 예견됐다"며 "다산신도시나 미사강변의 청약경쟁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사강변과 다산신도시는 정부의 규제 칼날이 아니었어도 희소가치로 인해 수요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수도권 청약시장의 열기는 풍선효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들이 입지가 좋은 데다 중도금대출 무이자 등 단지별 금융 혜택까지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용산역 증축… 문화·상업 중심지로

연면적 34만㎡로 확대
CGV 본사 이전 예정

서울 용산역이 이 지역 일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증축돼 문화·상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용산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증축은 용산역(한강로3가 40-999) 일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역사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결정됐다. 용산역 일대는 역사 방문객 증가와 면세점 입점, 최근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많은 상권 변화가 예상됐던 곳이다.

용산역의 연면적은 현재 27만8105.21㎡에서 34만1752.27㎡로 확대된다. 용산역사 양옆에 각각 5층 규모로 위치한 달주차장·해주차장 위로 6만3647.06㎡가 증축된다. 증축된 부분에는 CGV본사가 이전할 예정이며, 동시에 IMAX 상영관 수가 늘어나고 주차장 면적도 넓어진다.

서울 용산역사 추가 증축 계획



시는 증축 연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받아 용산복합역사부터 용산관광호텔까지 공공보행통로 연결, 문화·전시시설, 휴게시설, 관광·안내데스크 설치, 문화공연·휴게를 위한 캐노피, 주민편의시설과 의무실 등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용산역 일대가 보행축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읽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보인다!

경매 신의 한 수

이성용 지음 | 260쪽 | 올컬러 | 14,000원

《경매의 신》《월세의 신》《부동산의 신》 저자의 최신작!

경매 투자의 알짜 기술과 꼭 피해야 할 위험요소

만화 사례로 쉽고 재미있게 끝내기

2016년,
경매의 神과 함께
부자 좀 되어봅시다!

경매로 부자 되기 열망 지수 테스트

1. 빌라 초단타경매 환금전략을 알고 싶다 ☐ Yes ☐ No
2. 반값 낙찰 후 명도할 수 있는 모델을 알고 싶다 ☐ Yes ☐ No
3. 경매 물건에 미납관리비가 많을 때 대처법을 알고 싶다 ☐ Yes ☐ No
4. 건물만 경매로 나왔을 때 수익 올리는 법이 궁금하다 ☐ Yes ☐ No
5. 땅만 경매로 나왔을 때 수익 올리는 법이 궁금하다 ☐ Yes ☐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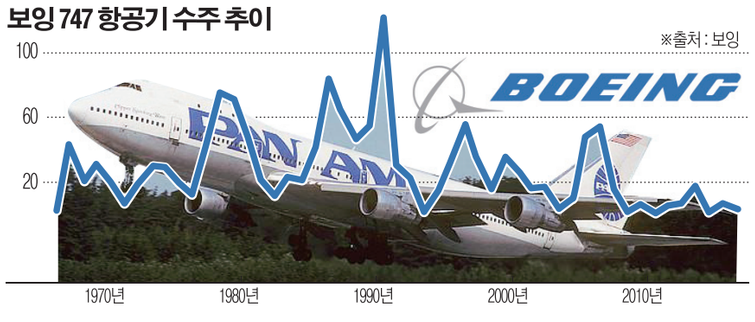
Yes가 1개 이상 나왔다면?
처방! 당신에게 이 책이 시급하다!

무한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점보기 대명사 '보잉 747' 날개 접나

항공시장 대형기 수요 침체
올해 회계연도 기준 6대 그쳐
2분기 순손실 2억3400만 달러
"수주 늘지 않으면 생산 종료"
50년간 1500대 이상 판매



항공여객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보잉의 베스트셀러 '747' 기종이 반세기 만에 하늘길에서 내려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수년간 747기종 수주가 급감하면서 제작사인 보잉이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머니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데니스 뮬런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시를 통해 "수주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747기종 생산 종료를 결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747 생산 중단이 최종 결정되면 지금은 사라진 미국 항공사 팬암 아메리칸 월드 항공사로부터 첫 수주를 받은 이후 50여 년 만에 단종되는 것이다.

보잉의 올해 회계연도 기준 연간 747 생산 계획은 6대에 그친다. 현재 수주 잔량도 21대뿐이다. 이 중 2대는 2023년부터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2대도 예정일 뿐 미국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주는 없었다고 WSJ는 지적했다.

보잉 747은 항공여객 시대를 연 기종으로 747 점보제트기는 미국 대통령 등 국가 정상들이 애용한 기종이다. 1970년 첫 취항 이후 1500대 이상이 생산돼 각국 항공사에 납품될 정도로 보잉의 베스트셀러였다.

가장 생산이 많았던 해인 1970년에는 한 해에만 92대를 생산했다. 이후에도 꾸준한 인기 속에 미국을 대표하는 여객기로 자리 잡았다. 국내 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와 화물기를 합쳐 각각 17대와 14대의 747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 전문가들은 747이 항공여객 시대에 가장 핵심 조건이었던 항공운임가격을 떨어뜨린 일등공신이라고 평가한다.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747 여객기 좌석 수가 600석에 달해 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마지막 호황기를 끝으로 747 화물기와 여객기 수주는 갈수록 줄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47 화물기 수주가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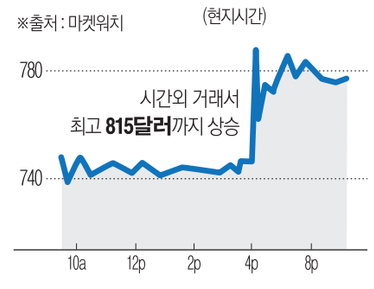
수출기업들이 운송료 부담에 화물기 대신 선박이나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었다. 여객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항공사 사이에서 엔진이 4개인 점보기 747보다 크기가 작은 엔진 2개짜리 여객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747 여객기 수요도 줄었다. 보잉의 경쟁업체인 에어버스도 이런 수요 흐름에 2018년 점보기 A380 생산을 2018년부터 줄이기로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의 50년 역사를 책임진 점보기 747의 명운은 부임한 지 1년 된 52세 뮬런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결정하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한편 보잉은 약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날 보잉은 올해 2분기에 입은 순손실이 2억3400만 달러(주당 37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순이익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2분기 매출도 1%에 오른 248억 달러에 그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알파벳, 또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순익 작년보다 43% ↑
주가 시간외서 815달러로 올라
지난 2월 장중 최고기록 넘어



알파벳이 자회사인 구글 광고사업의 호황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알파벳은 28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 급증한 48억8000만 달러(약 5조5046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부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8.42달러로,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8.04달러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215억 달러를 기록했다. 광고 파트너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매출은 175억 달러로 시장 전망인 168억60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이에 이날 알파벳 A형 보통주는 정규거래에서 0.51% 상승한 주당 765.84달러로 마감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최대 815달러까지 올라, 2월에 세웠던 장중 최고 기록인 801.35달러를 뛰어넘었다. 종가 기준 최고치는 지난해 말 수립했던 793.96달러다. 알파벳 C형 우선주도 정규 거래를 0.6% 상승으로 마치고 시간외 거래에서 4%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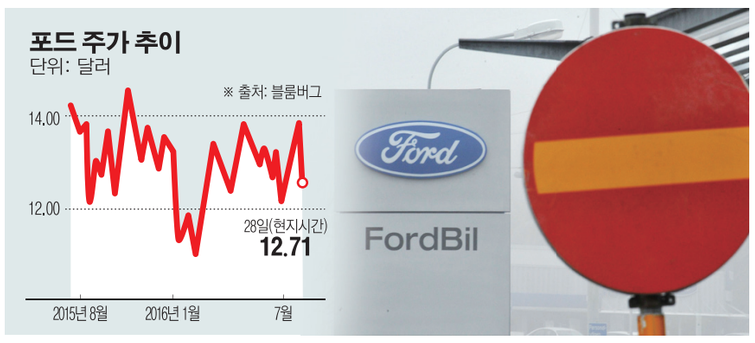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힘입어 사용자들이 데스크톱 PC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옮겨가는 상황에서도 광고 부문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구글은 검색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기기로부터 온다고 밝혔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구글 매출도 절반 이상이 모바일에서 창출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구글은 광고시장에서 페이스북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리서치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구글은 약 1870억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약 3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구글로부터 3%포인트의 점유율을 빼앗아 2014년 8.6%에서 2분기 약 12%로 높아졌다.

탄탄한 실적을 올렸지만 좀 더 비용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파벳의 '기타 베팅' 매출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억85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순손실은 그보다 더 큰 8억5900만 달러(약 9690억 원)에 달했다. 이 부문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홈 자회사 네스트 등 획기적이고 대담한 신규 사업을 뜻하는 '문샷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망라된 곳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포드 "2년간 10억달러 손실 전망"… 유럽 생산 브레이크

브렉시트 여진·산업 약화 영향
포드 주가 장중 9% 넘게 떨어져
영국내 공장 운영 중단 검토
파운드 환차손 만회 가격 인상도



미국 포드자동차가 영국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있는 공장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여파에 향후 2년간 유럽지역에서 10억 달러(약 1조12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로버트 생크스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손실 전망액 2억 달러 중 6000만 달러는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 따른 환차손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영국 자동차 시장의 약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크스 CFO는 설명했다. 생크스 CFO는 또 2017년과 2018년에 나타날 브렉시트에 따른 환율 위험과 산업 약화 충격은 4억~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회사는 연말께 영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환차손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달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이후 11% 추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드를 비롯한 영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환차손에 따른 실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PSA푸조시트로앵도 영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경쟁업체들도 잇달아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드는 브렉시트 역풍과 함께 미국과 중국 시장의 수요 감소로 하반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우울한 전망에 이날 포드 주가는 장중 9%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포드는 현재 영국 브리젠드와 대거넘 두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엔진 등 부품을 생산해 다른 EU 회원국에 수출, 최종 조립을 하고 판매를 위해 엔진을 재수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국이 EU라는 거대 단일시장을 이탈하면서 포드의 EU 역내 수출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부 완성차업체들이 브렉시트 이후 무역장벽에 가로막혀 영국 내 공장 운영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영국 은행인 로이드뱅킹그룹도 브렉시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3000명 규모의 추가 감원과 4억 파운드가량의 연간 비용 감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클린턴 어깨동무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전당대회 셋째날인 2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나란히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전당대회 마지막날인 2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누구도 홀로 미국을 자유롭고 공정하고 강하게 만들 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면 더 강한 이유"라고 주장, 나흘간의 대미를 장식했다. 클린턴은 첫 미국 여성 대통령을 향한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필라델피아/로이터연합뉴스

마오쩌둥 손녀사위, 소더비 최대주주 등극

천둥성이 이끄는 생보사 타이캉
지분 13.5% 인수… 이사직 관심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손녀사위 천둥성<사진>이 이끄는 생명보험사가 영국의 세계적 경매업체 소더비의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천둥성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타이캉생명보험이 소더비 지분 13.5%를 인수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이캉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적극적 투자자일 경우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타이캉은 헤지펀드 매니저인 써드포인트의 대니얼 로브(11.38%)와 포인트72의 스티븐 코헨(5.5%)을 제치고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됐다.

타이캉은 "소더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사회와 경영진을 지지한다"며 "미래 이사 자리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50대 후반에 마오쩌둥의 외손녀 쿵둥메이와 결혼한 천둥성은 중국 메이저 경매업체 중 하나인 차이나가디언옥션을 설립할 정도로 경매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가 세운 차이나가디언옥션은 최근 더 많은 외국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 미국 뉴욕에 사무실을 열었고 2012년에는 홍콩에서 첫 해외 경매를 개최했다. 또 현재 정기적으로 미국 여러 도시를 돌며 '고미술품 로드쇼' 행사를 하고 있다.

홍콩은 차이나가디언의 핵심 경매 허브이자 소더비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타이캉의 투자는 양측 모두에 잠재적 혜택 또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테드 스미스 소더비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우리 이사진이 이미 타이캉 임원들과 만났다"며 "타이캉이 우리에게 보낸 지지를 따뜻하게 환영한다. 이번 투자가 주주 모두와 고객, 직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오라클, 93억달러에 넷스위트 인수

프리미엄 19% 붙어 투자자 불만



오라클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업체 넷스위트를 93억 달러(약 10조49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오라클이 2004년 피플소프트를 103억 달러에 적대적 인수한 이후 두 번째로 큰 인수·합병(M&A) 규모다.

오라클은 주당 109달러 현금에 넷스위트를 사들인다. 이는 넷스위트의 전날 종가 91.57달러에 19%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다.

WSJ는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넷스위트를 사들였지만, 그가 두 회사와 관계가 깊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크 넬슨 넷스위트 최고경영자(CEO)는 1990년대 오라클에서 마케팅 사업을 담당할 당시 엘리슨과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엘리슨과 그의 가족은 지난 4월 기준 넷스위트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인수가를 고려하면 현재 이 지분 가치는 35억 달러에 이른다. 엘리슨은 오라클 지분 27%도 갖고 있다.

오라클은 성명에서 "엘리슨과 가족 외 다른 넷스위트 주요 주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또 오라클의 독립이사 위원회가 이번 인수를 평가하고 협상에도 임했다"고 해명했다.

두 회사 모두 금융과 인적자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자동화를 돕는 기업 솔루션, 즉 ERP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넷스위트는 온디맨드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업체다. 브래드 레백 스티플니콜라우스 애널리스트는 "두 회사의 영역이 일부 겹치지만 넷스위트는 오라클이 강하지 않은 중소기업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해외시장 진출에서 오라클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도 세계 판매 1위

상반기 511만6800대 1.5% 증가
도요타 499만2000대로 뒤이어



독일 폭스바겐<사진>이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2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서 511만6800대를 팔았다. 이는 전년보다 1.5% 늘어난 수준이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역풍을 맞았지만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를 확대한 것이 큰 힘이 됐다. 이로써 폭스바겐은 2년 연속 상반기 판매 1위를 달성했다.

폭스바겐과 수위를 다퉈온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위에 머물렀다. 도요타는 올 상반기 그룹 전체의 세계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499만2000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다이하쓰공업과 히노자동차를 포함한 도요타의 상반기 일본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112만3300대, 해외 판매는 0.7% 감소한 386만8000대였다.

해외는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유럽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중동과 미국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475만8000대로 세계 판매 3위를 기록했다.

도요타는 올해 사고와 지진 등으로 생산 차질이 잇따랐다. 1월 아이치제강 공장 폭발 사고와 4월 구마모토 현 지진 여파로 일본 내 공장 가동 중단을 반복해야 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2015년까지 도요타가 4년 연속 1위였다. 지난해 연간 판매 대수는 폭스바겐이 전년 대비 2% 감소한 993만600대, 도요타는 0.8% 감소한 1015만1000대였다.

올 들어 현재까지는 폭스바겐이 약 12만 대 앞서는 상황. 저유가 기조에 힘입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 인기를 모으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히트 상품의 적기 투입이 양사 경쟁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회장, 생애 첫 저서 '태양광 선언' 출간

"사업 아이템 넘어 사명감"…태양광 전도사 나서

국내 태양광 산업계 1세대 기업인
美·日 수출위해 직접 바이어 만나
中 저가 악재에도 5년 만에 흑자

지금보다 '풍요로운 삶' 영위하게 할
자급자족 전력 더 널리 알리고파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회장이 생애 첫 저서 '태양광 선언(오른쪽 사진)'을 이달 중순 출간했다. 사진제공 신성솔라에너지

"태양광은 나에게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넘어 일종의 사명감과도 같았다."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회장이 76세의 고령에 생애 첫 저서를 집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침체돼 있었던 태양광 시장을 다시 한 번 조망하고, '자급자족' 전력으로서의 태양광을 더 널리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은 이 회장에게 펜을 들게 했다.

이 회장은 이달 중순 태양광 발전 관련 저서 '태양광 선언'을 출간했다. 이 회장은 이 책을 통해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등 다양한 발전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태양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들을 직접 본인이 기업 현장에서 얻었던 경험들로 풀어냈다.

책의 저자인 이 회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계에서 1세대 기업인으로 통한다. 국내에서 태양광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07년부터 이 분야에 뛰어든 그는 태양광 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신성솔라에너지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미국 등지에 태양광 전지를 수출하기 위해 직접 비행기에 올라 바이어들을 만났다.

이 회장은 태양광의 암흑기를 버텨온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인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2014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던 상황에서 회사를 추스렸던 기억은 이 회장에게도 여전히 아찔한 경험이다. 당시 대기업들도 대거 무너졌던 상황이었지만, 악재를 버텨낸 이 회장은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때문에 이번 저서에 대해 이 회장이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 현재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회장에게 태양광은 일종의 신앙과도 같다. 일각에선 태양광을 효율성이 낮은 발전원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향후 전력생산 방향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향한 만큼, 가격만 저렴해진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 회장은 "1세대 태양광 사업가로서 태양광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거대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를 자급자족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정유 기자 thec98@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연임



정의선〈사진〉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7일 실시된 제12대 대한양궁협회 회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05년 5월 대한양궁협회 9대 회장으로 첫 부임, 2009년 10대 회장과 2013년 11대 회장을 연임했다. 또 2005년 9월부터 아시아양궁연맹(WAA)의 8~10대 회장을 맡아 이끌었다.

김희진 기자 heejin@

구글 인사 책임자 라즐로 복 10년 만에 은퇴…고문으로



구글의 최고 인적자원책임자(CHRO)인 라즐로 복〈사진〉 인사담당 수석부사장(SVP)이 10년 만에 은퇴해 고문으로 물러난다고 포천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이날 10년간 인사를 담당했던 복이 고문으로 물러나고, 후임으로는 구글 영국·아일랜드 지사의 영업·관리 담당 부사장(VP)이던 아일린 노턴을 임명한다는 인사를 발표했다. 복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는 트윗을 남겼다.

작년에 출간된 복의 첫 저서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원제 Work Rules!)'는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 매체들이 집계한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한화, 평창올림픽 불꽃행사·성화봉 250억 후원

김승연 회장 "성공개최 적극 지원"

한화그룹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기원을 위해 250억 원을 공식 후원한다.

한화그룹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최양수 ㈜한화 대표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한화그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조직위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될 불꽃행사와 성화봉 등을 지원한다. 한화는 D-500, D-365, D-100,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폐막식 등 총 7회에 걸쳐 열리는 불꽃행사를 지원하며, 올림픽의 대표 상징물인 성화봉도 8000여 개를 제공하는 등 총 250억 원 상당을 후원한다.



최양수(오른쪽) ㈜한화 대표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협약식에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그룹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양수 대표는 "한화그룹이 지난 88서울올림픽에 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지원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은 "한화의 지원으로 붐업 조성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추가적인 국내 후원사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프란치스코 교황님 조심하세요"

폴란드 방문 미사집전 중 넘어져

프란치스코 교황이 폴란드에서 미사 집전 도중 자신의 사제복을 밟아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에 따르면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세계청년대회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 집전 도중 넘어졌다. 이날 교황은 폴란드 가톨릭 성지인 체스트코바의 야스나 고라 수도원에서 수십만 명의 군중을 앞에 놓고 미사를 집전했다.

교황은 '블랙 마돈나'로 명명된 이곳의 유명한 성모 성화에 경배를 표하기 위해 향로를 들고 제단으로 올라갔다. 제단으로 오르던 교황은 자신의 긴 사제복을 밟아 왼쪽으로 살짝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은 미사를 돕던 다른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미사를 이어갔다.

올해 79세로 고령인 교황은 한때 계단을 오를 때 가끔 휘청이거나, 다리를 절며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을 두고 그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좌골 신경통으로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오른쪽)이 28일(현지시간) 폴란드 가톨릭 성지인 체스트코바의 야스나 고라 수도원에서 야외 미사를 집전하던 도중 사제복에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진 뒤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고 있다. EPA/연합뉴스

김준형 기자 junior@

인사

◆**기획재정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권동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 박석하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공공의료과장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 김기석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자립지원과장 김우기 △기초의료보장과장 이경은 △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분석평가과장 조충현 △요양보험제도과장 김혜선 △질병관리본부 전략기획단(단장) 양종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장 홍정익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직무대리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이주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이종상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윤보영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장 정종갑 △국립목포병원 서무과장 김동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 오태욱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 윤영득 △건강증진과장 권병기

◆**국토교통부** ◇**인사교류** △부산광역시 문석준

◆**서울시** ◇**1급 승진**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시의회사무처장 김경호 ◇**2급 승진**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 △복지본부장 장경환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3급 승진**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남 △정책기획관 김태균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정중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장 김병진 △미래전략추진단장(서울지역본부장 겸임) 이충호 △전북지사장 김도원 △광주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장 이인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 김병관 △전략기획부장 김동호 △월드프렌즈코리아(WFK)부장 김승범 △경제사회개발부장 백숙희 △해외운영안전실장 성준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감사 오정환

◆**사회보장정보원** △경영기획본부장 임창빈 △정보개발본부장 조봉오 △복지정보본부장 최명경 △바우처관리본부장 최재항 △바우처정보본부장 박병환

◆**한국수입협회** △상근부회장 김현명

◆**신한금융투자** ◇**그룹장직무대행** △경영기획그룹 신동철(전략기획본부장 겸직) ◇**본부장직무대행** △경영관리본부 최문영 ◇**부서장 신임** △디지털전략부 박상용 △PBS준비팀 임일우(에퀴티 스왑부장 겸직)

◆**이화여대** △학사부총장 송덕수 △대학원장 오정화 △의학전문대학원장(의과대학장 겸임) 김경효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겸임) 강동범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사회복지대학원장 겸임) 정순둘 △신학대학원장 정희성 △정책과학대학원장 최대석 △임상보건과학대학원장 권오란△인문과학대학장 박창원 △사회과학대학장 최은봉 △자연과학대학장 윤영대 △사범대학장 성효현 △건강과학대학장 김경숙 △호크마교양대학장 김정선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이인성 △교무처장 서혁 △기획처장 박선기 △학생처장 정현미 △입학처장 남궁곤 △총무처장 조미숙 △재무처장 이외숙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겸임) 오억수 △국제교류처장 박인휘 △대외협력처장 한종임 △중앙도서관장 정연경 △감사실장 오종근 △교목 양현혜 △건축본부장(의과대학) 강미선 △교육혁신단장 송덕수 △교육혁신센터장 정혜중 △MOOC센터장 강영옥 △이화학술원사무국장 권은미 △박물관장 장남원 △자연사박물관장 원용진 △이화역사관장 함동주 △국제하계대학원장 박인휘 △이화미디어센터주간 차희원 △출판문화원장 권은미 △사회복지관장 정순둘 △문화예술교육원장 이인성 △기초과학연구소장 윤주영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장 류철균 △다문화연구소장 박창원 △양자메타물질연구센터소장 우정원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장 박윤정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소장 이지희 △이화CNRS 국제공동연구소장 우정원 △이화·잭슨랩암면역치료법연구센터소장 이상혁 △세포항상성연구센터소장 윤영대

◆**서울여대** △교목실장 김기숙 △교무처장 이병걸 △학생처장(취업경력개발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사회봉사센터장 겸임) 김경원 △사무처장 이윤선 △기획처장 오승현 △입학처장(입학사정단장 겸임) 한승준 △산학협력단장(연구지원실장·창업보육센터장·창업교육센터장 겸임) 노용환 △국제교류단장(외국인지원센터장 겸임) 정낙원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장 김명숙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 미소"



28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한국방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6 종사자 미소국가대표 위촉식'에서 박삼구 위원장(앞줄 가운데)과 종사자 미소국가대표들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사자 미소국가대표는 출입국·세관부터 교통, 음식, 숙박, 쇼핑, 관광안내, 관광경찰 등 다양한 접점에서 친절과 미소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해 친절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관광 접점의 우수 종사자이다. 연합뉴스

강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기완료

중기청·중진공 지원협약 41일 만에 中企 핵심인력 100명 합류

중소기업청의 장기재직 인력지원사업 '내일채움공제'에 강원도 중소기업 핵심인력 100명이 합류했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강원도와 중소기업 지원 협약 이후 41일 만에 도내 핵심 인력 100명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 인력이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달 중기청, 중진공, 강원도, 강원 중소기업단체연합회는 '강원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가 도내 우수기업에 대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향후 5년간 매년 100명씩 가입시키고, 총 30억 원의 예산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강원도의 이번 지원은 청·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강원도 원주 소재 중소기업 데이리젠도 이번에 직원 3명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켰다. 이 회사의 고영웅 대표는 "기업의 부담금이 적지 않은 편이지만, 5년간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 좋다"며 "납입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로 우수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을 통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우수인력의 이직을 방지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연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5916개사, 1만4711명이 가입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美 포브스 "싸이 '강남스타일' 인기 여전"

유튜브 수익만 28억원…하루 300만 번 재생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사진〉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튜브에서 매일 300만 번씩 재생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포브스 온라인판에 따르면, 프리랜서 뮤직 저널리스트인 휴 매킨타이어는 "대부분의 인기 음악들은 빅히트를 친다고 해도 일정 기간만 대중의 귀에 남아있어, 1년 이상 라디오나 인터넷에서 비중 있게 플레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그러나 싸이의 세계적 히트곡 강남스타일은 이러한 트렌드를 역행했고 전형적인 여러 규칙도 깼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처음 공개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여전히 유튜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유튜브의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강남스타일은 지난 한 주(7월 15~21일) 2280만 번 시청돼 13위를 차지했다.

매킨타이어는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기록할 때마다 저작권자는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벌어들인다. 싸이는 유튜브에서만 250만 달러(28억 원)를 번 셈"이라고 추정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영화 '늑대와 춤을' 인디언 배우 볼드 이글 별세

영화 '늑대와 춤을'에 출연한 배우 볼드 이글(97)이 별세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배우 볼드 이글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샤이엔강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볼드 이글은 1990년 아카데미상 7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늑대와 춤을'에서 인디언 전사로 열연한 실제 인디언이다. 1919년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중 하나인 수(Sioux)족의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그는 2차 대전 당시 미국 육군에서 복무하기도 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총상을 입고 제대한 그는 스턴트맨으로 처음 영화에 데뷔했다. 이후 존 웨인을 비롯한 여러 배우에게 승마와 총 다루는 법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로서 4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볼드 이글은 수십 년 동안 인디언 거주 지역이 있는 사우스다코타주를 알리는 관광 모델로 활동해왔다. 인디언 사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토착민족국제연맹의 초대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부음

▲**이헌승**(새누리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 28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7시, 051-636-4444(920번)

▲**양승현**(청주시 상당구청 청소팀장)씨 부친상, **한미옥**(청주시청 아동지원팀장)씨 시부상 = 28일, 충북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43-269-7215

▲**김수환**(전 서울신문 전국팀 기자)씨 장인상 = 28일, 광주 일곡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62-574-4445

▲**정미진**(서울 경기고 사서교사)씨 별세, **박종식**(한겨레신문 사진에디터석 기자)씨 부인상 = 28일, 대구 국화원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10시 30분, 053-560-9571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2화 그녀는 분식회계 중 ㉑

"아냐, 자긴 천사야. 난 악마이고."

박 과장이 이혜진의 얼굴을 양손으로 어루만졌다. 이혜진의 맑고 큰 눈동자가 눈물에 가려 있다. 천천히 얼굴을 당겼다.

"아니에요. 늘 제가 오빠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혜진의 입술은 불처럼 뜨거웠다. 눈물이 입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다른 날보다 더 적극적으로 품에 안겨들면서 키스를 받아들였다. 식탁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누웠다.

이혜진이 흥분에 들뜬 얼굴로 박 과장의 넥타이를 풀었다. 박 과장이 일어나서 옷을 모두 벗었다. 그 사이에 이혜진도 팬티와 반바지를 한꺼번에 벗어 버리고 박 과장에게 달려들었다.

이혜진은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고 갈망에 몸을 떨었다. 지금 배 안에 아기가 있다. 아이에 대한 연민과 박 과장에 대한 사랑이 갈망으로 변해서 뜨거운 전율로 밀려왔다.

박 과장이 이혜진의 상체를 끌어당겼다. 이혜진은 덩치만 컸지 힘없는 아이처럼 그의 품 안에 안겨들었다. 박 과장은 더 이상 키스를 하려 들지 않았다. 탱탱한 젖가슴을 만지려들지도 않았다.



"오, 오빠."

이혜진은 잠시나마 박 과장의 사랑을 임신테스트기 위에 올려놓고 시험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몇 시간 동안이나마 의심했던 후회가 발가락 끝을 전율로 후려갈겼다.

"오빠!"

이혜진이 박 과장 위로 올라갔다. 박 과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떨어트렸다. 박 과장이 능숙하게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렸다. 이혜진의 몸 안으로 한없이 낯설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때로는 얼굴이 뜨겁도록 부끄러운 물건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짧고 뜨거운 섹스가 끝났다.

"자기가 비서실로 가면 낮에는 못 보겠지?"

박 과장은 이혜진의 옆구리를 잡고 침대로 갔다. 침대에 누우며 슬픈 목소리로 속삭였다.

"비서실에 안 가면 안 되나요?"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 적성에 안 맞는다고 버티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럼 저 안 갈래요."

"아냐, 가는 것이 좋아. 미래를 위해서는 가는 것이 좋아. 유성홀딩스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될 수도 있는 길이잖아."

"저는 오빠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이 좋아요. 오빠 출근하면 집에서 청소하고, 오빠 옷 빨래하고,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이혜진이 박 과장의 살찐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으면서 뜨겁게 속삭였다.

"어이그! 요 이쁜 것!"

박 과장은 마음속으로 '오 마이 갓!'이라고 외쳤다. 힘이 불끈 치솟는다. 그래도 젖 먹던 힘까지 더하여 가파른 언덕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많이 얻는 쪽이 있으면 많이 잃는 쪽이 존재할 뿐이다. 이혜진도 그렇다. 이혜진이 분식회계를 더 크게 할수록 투자자들은 더 많은 돈을 잃게 된다.

박 과장이 옵션으로 '이혜진의 비서실 포기'까지 따낸 힘을 오직 한 군데로 모아서 축포를 터트리고 있는 시간에 김승철이 지하철역에서 내렸다.

김승철은 박 과장이 꽃다발을 산 꽃집에 들어갔다. 박 과장처럼 돈을 아끼지 않았다. 무조건 화려하고 싱싱하고 향기가 짙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김승철은 어둠의 품에 안겨 있는 오피스텔을 바라봤다. 대박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만 신이 주는 선물이다.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오피스텔을 바라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침의 수선화 같은 이혜진의 얼굴을 그리며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신호는 가는데 이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승철은 뒷걸음쳐서 인도 가장자리까지 갔다. 고개를 들어서 오피스텔의 층수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인사부 동기에게 부탁한 정보에 의하면 이혜진은 12층 1205호에 산다.

12층에는 도로 쪽으로 스물 몇 개의 오피스텔이 있다. 건물 뒤쪽에도 있으니까 1205호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김승철은 길게 심호흡을 했다. 세상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노력하는 자에게만 보답이 주어지는 법이다. 지금 12층에 한 송이 수선화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병들어 있다. 정신적으로 가장 심약한 상태인 것이다. 이럴 때 백마를 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꽃다발을 내민다면 감동할 것이다.

꽃다발을 코앞에 댔다. 향기가 짙었다. 백합의 향기가 이혜진에게서 풍기는 것처럼 향기로웠다.

김승철은 이혜진이 감격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는 두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한 대는 12층에서 내려오는 중이다. 다른 한 대는 지하 3층에서 올라오는 중이다.

김승철은 망설이지 않고 지하에서 올라온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5층쯤 올라가고 있을 때 12층에서 내려 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사우나탕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얼굴이 뽀송뽀송해진 박 과장이 습관처럼 고개를 먼저 내밀었다. 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토끼처럼 얼른 밖으로 튀어나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가볍게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제 2화 끝〉

그대, 현대시조를 아는가

오늘의 문학산책



유 성 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자유시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을

왜 '시조'라는 구속적 형식으로?

정형의 울타리 통한 우주적 상상력

'존재의 감옥' 아니라 '존재의 집'!

서, 중세기 내내 이조년, 원천석, 성삼문,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황, 이이, 매창 같은 뛰어난 시인들로 그 계보를 이어왔다. 벌써 천년 가까이를 헤아리는 이 오랜 문학 양식은, 정형 율격에 안정된 시상(詩想)을 담는 전통적 그릇으로 인지되어왔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정격(正格)의 사유나 감각이 담기는 것이 가장 어울려 보이고, 파격의 형식이나 복잡한 정서는 불편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시조는 사물과의 불화보다는 화해, 새로움의 발견보다는 익숙함의 확인, 갈등보다는 통합 쪽으로 그 중심을 할애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이러한 화해와 익숙함과 통합보다는 다양성과 낯설음과 아이러니가 미학적 주류로 기능하는 시대이다. 그러니까 전통 양식인 시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아직도 시조가 씌어지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이들도 드물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조는 왕성하게 씌어지고 읽히고 유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복합성이 고도로 얽혀 있는 현대에는 "왜 시조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생성되면서 시조의 존재론과 미학적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고시조를 지나 현대시조로 발전해오면서 시조는 많은 변화를 치렀다. 현대시조는 고시조와는 달리, 현대인의 복합적인 사유와 감각을 담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감당하느라고 최근 현대시조에는 요설과 파격을 통한 충격적 시형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형식의 확산과 다양화를 위한 고육책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시조다움'을 훼손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면, 시조는 양식의 본령을 잘 견지하면서 부분적 변용을 이루어내는 것이 온당하다. 정형시 전통은 오랜 세월을 축적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고유하게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조가 현대적 양식으로 양식적 동일성을 가져가기에는 여러모로 인프라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외적 강제 규정이 가장 많이 따라붙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시 양식 중 거의 모든 갈래가 사멸의 길을 걷거나 다른 장르로 흡수되어버린 것에 비해, 시조는 우리 문학의 장자(長子) 노릇을 아직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형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형이라는 제약 때문에 어려운 장르라고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창작과 향유의 현재성을 거느리고 있는 양식이시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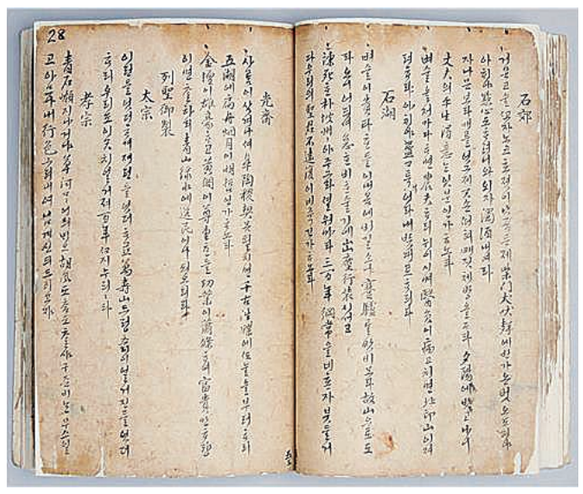
정형시와 자유시

정형시와 자유시 사이에는 형식적, 내용적 차이가 일정하게 존재한다. 그 가장 주된 차이는 '율격'의 원리에 있다. 가령 정형시에는 일종의 선험적인 율격 원리가 주어져 있다. 그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코 정형시가 될 수 없는 최소한도의 요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자유시에는 그 어떤 원리도 미리 주어진 것이 없고, 시인의 호흡에 따른 자유로움만이 사후적(事後的) 필연성으로 부여될 뿐이다. 물론 자유시 안에도 자유로운 율격이 있는 것이지, 율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 시조인가?

오랜 언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형시 양식을 보존하고 계승해왔다. 영미 문화권의 소네트(sonnet)나 한자 문화권의 한시(漢詩), 그리고 일본의 와카[和歌]나 하이쿠[俳句]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조(時調)'가 가장 오랜 명맥과 영향력을 가진 정형시로 사랑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시조는 이방원과 정몽주가 주고받았던 '하여가(何如歌)'와 '단심가(丹心歌)'를 기원으로 하면





김천택이 1728년 편찬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시조집 '청구영언'(靑丘永言). 최근 국립한글박물관이 원본을 입수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시조가 태종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다. 오른쪽 사진은 '청구영언'의 서문 부분.

사진제공 국립한글박물관

그런데 최근 씌어지는 자유시는 줄글로 씌어지는 산문시 양식이 범람하는 데다, 최소한의 내적 호흡에 바탕을 둔 운율마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율격 훼손의 극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 점에서 자유시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시조작품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왜 (굳이) 시조인가?"라는 원론적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자유시로도 표현 가능한 것을 왜 '시조'라는 구속적 형식을 통해 표현하려 하는가? 첨단의 디지털 시대에 '시조'라는 오래된 양식의 궁극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시조에 어떤 고유한 표현 형식과 자질이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상도(想到)하게 된다.

시조가 창사(唱詞)로서의 굴레를 벗어나 문자 예술로서의 성격만 남은 점을 고려한다면, 필연성도 없이 율격을 파괴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적극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단형의 정격을 단아하게 지켜냄으로써 시조는 SNS 시대의 매체적 속성을 한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장 6구의 제약은 이때 온전한 맞춤형의 최적화 형식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언어, 습속, 정신, 위의(威儀)를 그 안에 자연스레 내장하고 있는 시조는, '시절가조(時節歌調)'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시대의 풍속과 이념, 그리고 보편적 정서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표상해온 우리 문학의 정수(精髓)이자 보고(寶庫)이다. 우리는 이 같은 긍정적 요소들을 계속 발전시켜, 서구의 미학적 박래품(舶來品)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적 항체(抗體)로 현대시조를 키워가야 할 것이다.

정형은 '존재의 집'이다

결국 우리는 시조의 고유 자질인 '정형'이, 자유로운 시상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애 요인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적 특성을 통해서만 성취가 가능한 어떤 불가피한 '존재의 집'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불가피한 정형의 울타리를 통해 우리는 스케일이 큰 우주적 상상력에서부터 작고 미세한 사물들의 움직임에 이르는 다양한 시적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중하고 파장이 큰 내러티브와 함께 이른바 '충만한 현재형'에서 구축되는 순간적 정서를 다양하게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력과 정서가 정형 안에 잘 갈무리됨으로써, 이러한 해체 지향의 시대에도 잘 짜인 고전적 감각과 인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의 원초적이고 미분화된 정서와 통합적 삶의 이치를 만나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난경(難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시조의 '시조다움'을 더욱 첨예화하는 것밖에 없다. 정형은 그 점에서 폐쇄적이고 답답한 '존재의 감옥'이 아니라, 더없이 단란하고 화목한 '존재의 집'일 것이다

많은 서양인들은 시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조가 일본의 하이쿠에 비견되는 생명력과 자기 갱신력을 가진 장르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조가 가창적(歌唱的) 속성을 버리고 문자 예술로서의 지위만을 굳히게 되면서 근대 자유시에 주류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문학사적 공백을 반성하면서 현대시조에 대한 역사적 정리와 탐색을 열어 가야 한다. 말하자면 정밀하고 잘 씌어진 현대시조문학사(現代時調文學史)가 필요한 것이다. 우수한 연구자들에 의해 완성될 견고한 정형 미학의 역사 서술은, 정제된 의미론을 한없이 탈주하고 있는 국적 불명의 현실에서, 우리로 하여금 역설적 경종을 주는 자산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의 양축을 구성했던 시조와 가사 가운데 가사는 완전히 소멸한 데 비해, 시조는 시인의 숫자만 1000명이 넘어설 정도로 활황을 누리고 있다. 시조를 싣는 문예지가 20여 종이나 되고, 시조 관련 문학상만도 10여 개를 헤아리고, 시조 관련 단체도 여럿이며, 시조 백일장이나 시조 낭송대회 같은 행사들도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국제시조협회가 새롭게 발족하여 시조의 세계화에 나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비춰 우리는 '시조'를 얼마나 아는가? 그대, '현대시조'를 아는가?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친구부자,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하다

PART1. 친구, 내 남은 인생길의 동지! 유경 프리랜서 사회복지사
PART2. '나는 어떤 친구일까?' 〈디어 마이 프렌즈〉 캐릭터로 본 친구 유형
PART3. 시니어의 우정,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아당 심리상담센터 박대령 소장
PART4. 친구, 만들기보다 정리가 먼저!
PART5. 이런 거 땜에 친구와 의(義) 상한다 동년기자(백외섭·소현영·성미향·강신영)
PART6.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PART7. 일본 50대들의 친구 만들기 이태문 동경통신원

브라보 만난 사람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거듭나야" 문주현 MDM 회장의 돈의 철학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상자' '난곡동 수호천사'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풍파 이겨 내고 100세 인생 항해 오늘도 일합니다" 92세 현역 법무사 이종태

8월의 맛

속 시원한 메밀의 순수한 매력

막국수는 냉면, 콩국수 등과 더불어 여름 하면 생각나는 면 요리다. 차갑게 먹는 음식인데도 도톰하고 부들부들한 메밀 면발이 입술에 닿으면 어쩐지 따뜻한 정이 느껴지곤 한다. 투박한 매력에 순수함까지 더한 순 메밀 100% 막국수 맛집 '메밀연가'를 소개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지적질 확인하고 환호하라!"

참 덥다. 삶고 볶고 지지는 날씨에 짜증나고 답답한 일만 생기는 것 같다. 곳곳에서 눈에 띄는 암호 같은 말도 폭염공해를 더한다. 어느 지하철역 구내인지 잊었지만 '지적 확인 환호'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사진으로 찍어둔 일이 있다. 그 밑에 씌어 있는 '셔터박스 쇄정 철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니지만 전철기가 신호기를 취급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우는 걸 쇄정(鎖錠)이라고 한단다.

지적 확인은 글을 백 번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말을 생각하며 백 번은 아니지만 여러 번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지적질을 하면 확인하고 환호작약(歡呼雀躍), 기뻐서 소리 지르며 날뛰는 건가? 그러면 학교 교실이나 신문·출판사의 편집 교열데스크에 어울릴 텐데 왜 지하철 벽에 써 놓았지?



알고 보니 이 말은 '指摘 確認 喚呼'였다. 지적확인 환호응답 운동은 1960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시작된 무결점 운동으로, 손가락으로 대상물을 지적하고 눈으로 확인한 뒤 입으로 대상물의 상태를 말하는 3단계 과정이었다. 우리나라 철도 분야에는 1971년에 도입됐다고 한다.

'지적확인환호응답요령'에 의하면 '지적확인'은 확인하려는 대상물을 손가락(검지)으로 가리키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환호'는 지적한 대상물의 명칭이나 현재 상태를 소리 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확인환호응답'은 2명 이상이 함께 업무를 수행할 때 먼저 업무를 취급하거나 대상물을 발견한 직원이 지적확인 및 환호를 하면 다른 직원이 같은 요령으로 확인하고 복창하는 것이다.

그러면 좋다. 자기들끼리만 알면 되지 왜 일반 승객들이 볼 수 있는 곳에까지 이런 말을 써 붙여 머리를 썩이게 하나? 공부를 시키려구?

지하철역 구내의 '제연경계벽'이라는 말도 어렵다. 연이 연기를 말하는 건지 불탄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연이라는 말도 제압[制]한다는 건지 제거[除]한다는 건지 헷갈린다. 除燃(제연)이라면 실내에 차 있는 연기를 배출해 없애는 건데, 연기라면 煙氣를 생각하지 燃氣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경계벽도 경계(境界)가 되는 벽인지,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고 살피라는 경계(警戒)인지 헷갈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이 너무 어렵다고 바꾸자고 했더니 소방방재청(지금은 국민안전처)은 법규가 그리 돼 있는 데다 오랫동안 써서 사람들에게 익숙하다며 일축했다고 한다(익숙하긴 뭐가 익숙해?). 그런데 일부 역에는 '방연유리'라고 말을 바꿔 쓴 곳이 있다. 슬그머니 건의를 받아들인 것인가? 그래도 여전히 궁금하다. 防燃인지 防煙인지 모르겠다.

제세동기라는 말도 나는 어렵다. 굳이 찾아보니 부정맥을 보이는 심장에 고압전류를 극히 단시간 통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키는 기기가 제세동기였다. 한자로는 除細動器라고 쓴다는데 세동은 우리말로 잔떨림을 말한다니 안 떨리게 하는 기계인 모양이다. 내가 제대로 파악한 건지는 자신이 없다.

예전엔 '전착도장(電着塗裝) 적재함'이라는 말이 머리를 아프게 하더니 무슨 말인지 모를 단어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어렵게 말해야만 전문가로 알아주나? 이런 말 좀 쉽게 바꾸면 어디 덧나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이 안 궁금한가? 그러니까 안 궁안물, 안 궁금해서 안 물어보는 건가?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 태 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사드와 무신불립(無信不立)

요즘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 생각난다.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는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답하셨다는 고사로, 정치의 요체는 바로 국민의 믿음 위에 기초한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의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일화이다.

사드 도입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필자는 도입 여부를 놓고 자신 있게 어느 편을 들 수 있을 만큼 군사적 전문성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도입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러한 국가적 중대사는, 누구보다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왔을 정부에서 통치행위 차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관심사는 도입 여부를 놓고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언론에서도 충분히 다루어 국민들의 과반수가 최소한 사드 배치가 국토방어상 왜 꼭 필요한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이해하는 수준이 된 연후에 발표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에서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도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음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중국에 보여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예컨대 전 세계에서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가장 잘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소문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rm)'이다. 미국의 페트리어트 체계로는 미사일 방어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언 돔'을 도입하고, 그러고도 북한의 고각도로 떨어지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드까지 도입하지 않을수 없다는 식의 점진적이고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방어수단 또한 높여가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면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졌을까 싶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정작 그에 대응하는 방어망 구축은 제쳐둔 채 국제 외교무대에서 비난 성명만 발표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탐지능력의 X 밴드 레이더가 장착된 사드 도입을 발표해 버리니, 중국으로서는 이 무기가 과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인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이처럼 갑자기 불쑥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래서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힘들다.

필자는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을 '경제는 믿음이다'로 바꿔 강조하고 싶다.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사피엔스(Sapiens)'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로움은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중세시대의 경우 미래는 잘해봐야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엔 부를 늘리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은 바로 남의 것을 빼앗는, 즉 파이를 재분배하는 것일 뿐, 정작 파이를 키우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세 들어 과학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또한 이러한 국민의 믿음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실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오늘의 **인물** 7월 29일
피터 제닝스

무표정으로 신뢰…1980~90년대 미국의 '국민 앵커'

피터 제닝스는 1938년 7월 29일 탄생해 2005년 8월 7일 폐암으로 세상을 등진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뉴스 앵커다. 학력이 고졸도 아닌 고교 중퇴였으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민 앵커'가 됐다.

그는 어떤 중대한 사건, 사고 앞에서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앵커 겸 방송인 백지연은 '나이스 포스'라는 자신의 책에서 "누가 보아도 울 이유가 많았던 그이지만 결코 울지 않았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그가 눈물을 흘릴 때보다 무표정할 때 더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서 출생했다. 어릴 때부터 방송 천재로 통했던 그는 9세에 캐나다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1965년에는 ABC 본사의 저녁 뉴스 앵커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좋은 일엔 마가 끼기 마련.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한 진행으로 쫓겨나게 됐다.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던 그는 1968년 중동 특파원으로 뽑히자 엄청난 활약을 해 앵커 퇴출의 아픔을 씻었다.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1978년 '월드 뉴스 투나잇'의 공동 앵커 3명 중 하나로 뽑혔다. 그리고 1983년에는 단독 앵커가 됐다. 이후에도 그는 특유의 냉정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그는 NBC 톰 브로코, CBS 댄 래더와 함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호령한 'Big 3 앵커'로 불렸다. 200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2005년 4월 폐암으로 '월드 뉴스 투나잇' 앵커를 그만뒀고, 앵커에서 물러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비슷한 때 톰 브로코와 댄 래더도 방송계를 떠나면서 'Big 3' 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죽었으나 ABC는 홈페이지에 아직도 그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를 기리고 있다.

이은호 미래설계연구원 연구위원 leeeunho7@

온라인 와글와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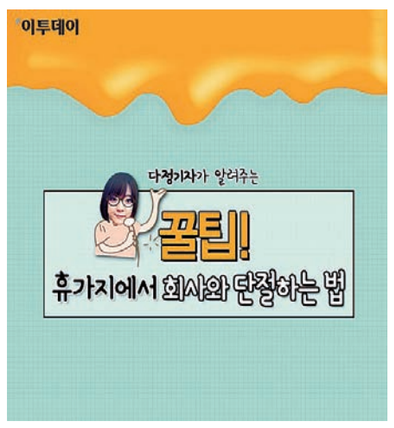
리조트 숙박권 거래 사기 주의보 "휴가철 방심하면 안 되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모(25·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6일 경주 모 리조트 45평형 회원용 숙박권을 20만 원에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겼다. 이어 성수기 추가 요금이 있다며 15만 원을 더 뜯어내는 수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피해자 51명에게 584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회원권이나 예약 번호를 해당 업소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는 "처벌을 강화해야 범죄가 줄어",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사기당할지 몰라", "사기라고 의심되면 꼭 다시 확인해봐야", "개인으로는 소액일지 몰라도 모이면 큰 금액인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카드로 보는 세상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소통'이 가능한 세상. 하지만 휴가지에서 만큼은 좀 안 터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모처럼 떠난 휴가지에서 "이거 좀 처리해줘야겠는데", "그 제안서가 말이야…" , "혹시 잠깐 복귀할 수 있나?" 등의 회사 연락을 받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휴가 떠나기 전 챙겨야 할 사항과 SNS 이용 팁 등 '완벽한 휴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cKh6LS



이슈&인물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20대 국회 경제 이슈 주도

박 광 온 더민주 의원

국가·지자체 채권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매입하는 방식
저출산 해결·연금고갈 해소
두마리 토끼 잡겠다는 것

조선업 왜 이리 부실해졌는지
거기에 왜 혈세 투입했는지
구조조정 목적 추경 예산
심의과정서 반드시 따질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종 경제 이슈의 선봉에 서 있다. 우선 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장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운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4·13 총선의 1호 공약인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연금 고갈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28일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심사를 비롯해 세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이슈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절실함을 호소하는 한편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고민을 밝혔다.

야정협의 시작일 뿐, 정부 설득할 것

△당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은 당의 총선 1호 공약이고 저출산 대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다. 당장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으니 가처분소득이라도 늘려야 한다. 주거비와 보육비 두 가지 문제를 국가가 일부 부담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는 거다. 10년간 85만 채 정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해 560개 정도, 10년 동안 5600개 정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자체도 큰 문제다. 국민연금은 올해 560조 원이 적립되고 2043년 2500조 원을 정점으로 고갈된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연금을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투자와 인구투자를 할 경우 이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연금 측면에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면에서는 인구절벽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보급하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다."

△최근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야정협의 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국민연금법 102조를 보면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돼 있다. 과거에 투자도 많이 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해서 연금으로 공공투자를 하는 자체보다는 회수 불가능한 그런 투자에 대한 불안 등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반대 진영에서 하는 얘기는 연금 수익률, 즉 연금을 훼손한다는 얘기다. 노후자금인데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인데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은 연금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사회투자채권은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은 채권발행 방식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그 채권을 사는 거다. 채권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국민연금은 전혀 손해 볼 일이 없고,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수익률이 있냐고 우려한다. LH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은 것에 관리비와 인건비를 빼면 마이너스(-)라고 단순 계산한 것이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 관련 부동산 분야 교수들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야정 협의 이후 정부하고 다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

"야정 협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끝내 박근혜 정부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를 해서 우리가 할 것이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방어 논리가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보고서의 경우 그 시각 자체가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투자를 할 경우 연금의 고갈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인데, 저출산 문제 해소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야 한다. 수익 여부 등 단기적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문제 해법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야정 협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료들을 보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많은 의원들도 이런 지적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다. 재정투입 여력이 없으니 이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서별관회의 '결정'이 청문회 대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의심이 들 정도로 허술하다고 본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은 해 놓고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교육재정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거다. 명백하게 잘못됐다. 보육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또 시끄러울 것이다. 결국 고통을 겪는 건 부모들이다. 정부가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있는 만큼 조정된 예산이 투입되고 시행되는 과정 역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량실업 발생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상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조선업이 부실하게 됐는지, 그 부실한 기업에 왜 혈세를 투입했는지, 또 회계조작 사실을 알면서 왜 투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당초 한은을 통한 방식이 아니고 추경에서 가져오는 건 우리 당이 우회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는 건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추경 심의 과정을 반드시 가려야 한다. 관리·감독 문제나 향후 재발 방지 다짐 등 여러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야 3당은 최근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 간에 서별관회의 포함 여부와 함께 시행 방식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서별관회의라는 건 과거부터 있었던 관행과 같은 일이니까 서별관회의 자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거기서 결정 사항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대상에 서별관회의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처음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다만 증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본다."

세제개편안 심의 '조세정의' 초점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장 중점적인 사안은 무엇인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는가.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게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 또 올해 담뱃세가 대략적인 계산으로 13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 수 3분의 1에 육박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98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 부담을 시키려면 다른 부분에서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야 한다. '우리가 봉이냐'는 생각을 들게 하면 그건 공정 세제가 아니다. 법인세 정상화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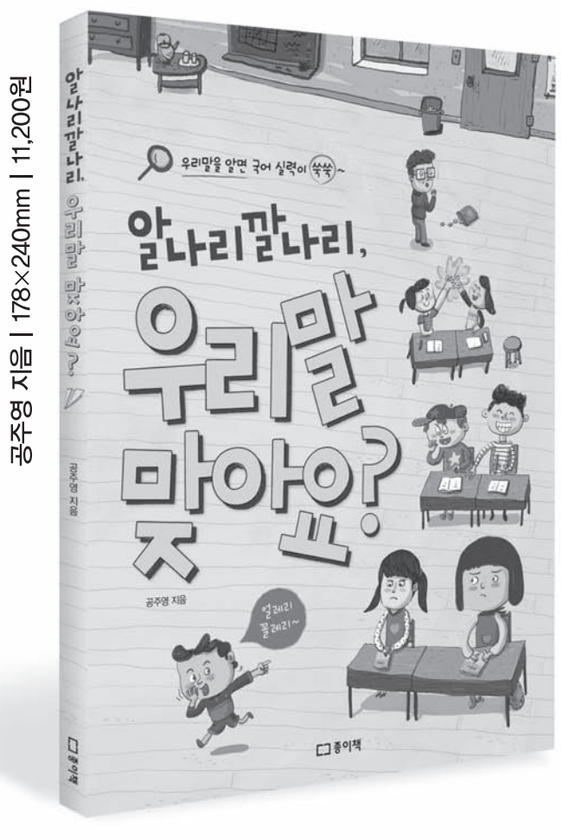
△세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한국 경제 역시 좀처럼 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야당 간사로서 기재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기재부가 말 그대로 재정정책 기획하는 곳이 아닌가. 근데 이런 경제정책 기조로는 더 이상 성장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다. 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 성장이 무너지는 게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경제정책은 고소득자와 거대 기업을 위한 방향으로 돼 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국민 대다수가 쓸 돈이 없어서 위축되고 인생의 장기계획을 잡기 어려워져 국가의 희망을 잃게 된다. 지금과 같은 기조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성장도 어렵고 희망도 갖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기재부가 경제정책 변화 기조에 나서길 희망한다. 기재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함께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 윤필호·이광호 기자 beetlebum@

방송기자 28년…재선의원

박광온 의원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MBC에 입사해 보도국장에 오르기까지 28년간 언론계에 종사했다. MB정부 시절 통과된 미디어법 반대 투쟁으로 해임됐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민주당 홍보위원장·대변인을 역임했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재선에 성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위원장과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국제팀 (02)799-2643
산업1부 (02)799-2663 산업2부 (02)799-2664 사회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1부 (02)799-2641 자본시장2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48
뉴미디어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사진영상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공주영 지음 | 178×240mm | 11,200원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초등학생 국어 실력 평생 간다!
이번 여름방학, 포켓몬 잡으러 go? 내 아이 어휘력 잡으러 go, go!

1~4학년 교과서 수록 단어 포함!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우리말!

- 교과서 수록 단어를 포함한 우리말 160여 개 풀이
- 반복 학습을 돕는 <은솔이가 내는 쏙쏙 우리말 퀴즈>
- 자주 써서 오래 기억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써 봐요>



온 · 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 중!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2, 4층 | Tel. 02-540-5192 | Fax. 02-540-5194 리스컴

Yes!

BE MY HERO!

나의 영웅이 되어줘!



NEW 얼라인먼트 퍼터 출시

www.yesgolfkorea.co.kr (주)유오엠 02.808.0707

배우 매니지먼트 첫 코스닥 직행…中자본 타고 성장 가도

엔터기업 지배구조 대/해/부

12·〈끝〉 화이브라더스

화이브라더스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드라마 OS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소속 아티스트만 30여 명에 달하며 국내 방송시장과 영화시장, 음원시장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심정운 대표가 2005년 8월, 심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명으로 설립했다.

2015년 9월 현대드림스팩(SPAC)2호와 합병을 통해 배우 매니지먼트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직상장한 화이브라더스는 현재 시가총액 2128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실적도 올해 1분기 매출액 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8% 수직 상승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억 원, 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5%, 120.1% 증가했다.



김윤석·김정은 소속사 시총 2128억원 중견기업
中 미디어그룹 화이브라더스 자회사 '화이러헝'
제3자배정 590만주 취득 지분 29.61% 최대주주

'런허춘티엔' '보광창투'에 구주양도 中투자처 확대
드라마 제작서 화장품 사업까지 '시너지' 기대
증권업계, 현지 미디어 유통 우위 '수혜주' 꼽아

◇화이브라더스 자회사 화이러헝유한공사가 지분 29.61%로 최대주주 = 중국 최대 종합미디어그룹 화이브라더스의 자회사 화이러헝유한공사(Huayi & Joy Entertainment Limited)가 지난 4월 2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부 완료와 주식양수도계약이행에 따라 심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9.61%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화이러헝유한공사는 제3자배정으로 590만 주를 취득했으며 매각대금은 120억 원이다. 화이브라더스는 미국 EMC 외 2인 대상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총 31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이브라더스미디어그룹 대표이사(CEO) 왕중레이와 재무총괄(CFO) 딩치, 조이포유 대표이사 루유미아오, 이퀄리브리엄 파트너스(Equilibrium Partners) 대표이사 지승범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최근 국내에 투자를 진행했던 대부분 중국 기업들은 투자만 단행했던 것과 비교할 때 화이브라더스는 투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재무총괄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왕중레이 회장은 지난 1994년 화이브라더스를 설립한 창업자로 영화, 드라마, 음반제작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해 화이브라더스를 시가총액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최대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화이브라더스는 상호명을 주식회사 심엔터테인먼트에서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Huayi Brothers Co., Ltd.)로 변경하고, 영화, 드라마 제작과 화장품 사업 등 신사업을 통해 중국 현지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화이브라더스, 신규 투자처 확보로 中 진출 기반 확대 = 화이브라더스는 지난 6월 중국 기업 런허춘티엔과 보광창업투자에 구주를 양도하며 시간외 대량매매로 신규 투자처를 확보해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런허춘티엔은 하비스트 글로벌(Harvest Global Limited)이 보유하던 구주를 36억 원에, 보광창업투자는 새한자산이 보유하던 구주를 12억 원에 각각 인수했다.

이로써 런허춘티엔과 보광창업투자는 화이브라더스의 새로운 주주가 됐다. 화이브라더스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쓰촨성에서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진 런허춘티엔, 문화 콘텐츠 분야 투자에 강점을 가진 보광창투의 합류로 시너지 효과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런허춘티엔은 중국 쓰촨성 대표 기업으로 백화점, 명품점 등의 유통 부문과 요식·호텔업, 부동산업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 상장사인 무업상업에 편입돼 쓰촨성 5대 백화점 사업자로 평가되는 등 현지 기업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콘텐츠와 결합한 유통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 화이브라더스 투자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 화이브라더스의 자사 코스메틱 브랜드인 뷰티핏의 중국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보광창업투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화이브라더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지승범 화이브라더스 대표는 "화이브라더스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M&A와 투자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투자사와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화이브라더스만의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에서 화장품 사업까지 사업 다각화 = 심엔터테인먼트는 기존 사업 외 뮤지컬 제작과 유통업, 화장품 제조와 판매업, 게임 제작과 유통업 등 8개 항목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해 사업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현재 MBC '운빨로맨스'와 하반기 촬영 예정인 '엽기적인 그녀: 사극'의 제작사로 콘텐츠 제작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이브라더스는 지난 6월 27일 KBS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과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숨은 주역으로 알려진 이선혜 작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유명 작가 영입으로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 가치의 제고를 예상하며 최대주주가 중국 자본으로 구성돼 있어 현지 미디어 유통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화이브라더스를 수혜주로 꼽았다.

화장품 사업에서는 홈쇼핑을 통해 자체 제조와 해외 직구 화장품을 선보이며 매출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최대주주인 화이브라더스 유통망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동반하고 있다.

화이브라더스는 3월 기존사업 외 화장품제조·유통·판매, 게임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GS 홈쇼핑을 통해 오는 모나코 브랜드 '꾸데끌라'의 콜라겐 라인을, 5월에는 자체 브랜드 '뷰티핏'의 파우더리 워터 파운데이션을 각각 론칭했다.

또 자회사 뷰티풀마인드 코리아를 설립해 신규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뷰티풀마인드 코리아는 심엔터테인먼트가 60%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유통과 판매를 위해 설립됐다.

화이브라더스 측 관계자는 "현재 중국 사업 쪽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엔터사업 외에 웹툰, 음반제작사와의 M&A를 검토 중이다"라며 "소속 배우의 중국 진출도 모색 중이며 감독, 작가를 영입해 드라마, 영화 제작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화이브라더스와 영화, 드라마 각 1편을 공동 제작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매출킹 누구

'연기대상 배우' 주원

'명품 배우군단' 안정된 개런티 수익 확보
1분기 매니지먼트 매출 36억, 전체의 67%


주원

화이브라더스는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배우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꼽힌다.

영화계에서 높은 개런티를 확보한 김윤석, 유해진과 주원, 강지환, 임지연 등 드라마 흥행 주역들이 대거 소속돼 매니지먼트 매출을 책임지고 있다.

화이브라더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4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중 배우들의 출연료, CF 모델료 등이 포함된 매니지먼트 매출은 36억90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67.58%를 차지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화이브라더스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배우는 주원이다. 2010년 KBS 2TV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로 안방극장에 데뷔한 그는 '각시탈', '굿닥터', '용팔이'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흥행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끌다 보니 그의 몸값도 치솟았다. 지난해 연말 연기대상 수상 후 회당 출연료는 더욱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더베이직하우스'의 모델로 활동 중인 주원은 해당 브랜드의 중국 지역 모델까지 병행해 수익이 극대화됐다. 이에 힘입어 그는 중국 드라마 '애정야포유' 남자 주인공으로도 낙점됐다.

김윤석, 유해진, 김상호 등 영화배우의 존재도 화이브라더스 매출에 절대적이다. 김윤석은 '추격자', '도둑들', '극비수사', '검은 사제들' 등 다수의 흥행작에 출연했다. 유해진 역시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타짜', '베테랑' 등에서 활약했다.

영화계에 따르면 김윤석의 개런티는 송강호, 최민식에 뒤지지 않는 업계 최고 수준이며 유해진 역시 톱스타 출연료에 다작까지 하면서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매니지먼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출연료의 경우 당분기 말 기준 출연료 미수금이 14억 원에 달한다.

최두선 기자 sun@



영화가 하반기 기대작

여름은 전통적으로 극장가 최대 성수기에 해당한다. 이 시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배급사의 1년 농사가 좌지우지된다 해도 무방하다. 배급사들이 여름에 승부를 낼 만한 작품 확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하지만 여름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바로 추석 시즌에 돌입해야 하니까. 추석 시즌에 찾아오는 김지운 감독의 '밀정'을 시작으로, 하반기 극장가에도 기대작들이 속속 찾아들 예정이다. 2016년 하반기 한국영화 가이드를 준비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밀정' 송강호·'마스터' 이병헌·'아수라' 정우성…

올 가을… 어떤 남자에게 끌릴까

1 '밀정', 적인가 동지인가



다시, 일제시대다. 흥행 잭팟을 터뜨린 '암살'에서 시작된 일제로의 시간 여행이 '동주', '아가씨', '덕혜옹주' 등을 거쳐 '밀정'으로 이어진다. '밀정'은 일제의 주요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의 숨 막히는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에 쏟아지는 관심의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할리우드 제작사 워너브라더스가 투자 배급하는 첫 번째 한국 영화일 뿐 아니라, '라스트 스탠드'로 할리우드로 외도했던 김지운 감독의 3년 만의 국내 복귀작이다. 그리고 송강호가 있다. 송강호가 나오면 적어도 '쪽박은 패스'라는 말이 있다. 흥행을 떠나 작품 선구안면에서도 한국에서 독보적인 배우다. 여기에 공유가 '부산행'에서 얻은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UP 송강호! 세 글자가 주는 신뢰
DOWN '암살'의 소재와 겹쳐 보인다고요?

2 '마스터', 속고, 속인다



영화 제작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충무로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작품이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쫓는 지능범죄수사대와 희대의 사기범, 그리고 그의 브레인까지, 그들의 속고 속이는 추격을 그린 범죄오락액션 영화로 강동원, 이병헌, 김우빈이라는 막강한 삼각편대가 형성돼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특히 강동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을 쫓는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을 맡아 눈길을 끈다. 강동원의 형사 역할은 이번이 처음. 충무로에서 흔하디흔한 캐릭터 중 하나인 형사를 이제야 연기한다는 것이 다소 놀라운데, 그만큼 강동원이 다양한 인물군상을 선택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을 벌이는 원네트워크 '진회장' 역을 연기하는 이병헌의 연기력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일 게다. 기대된다.

UP 강동원+이병헌+김우빈=이 무슨 조화란 말인가
DOWN 제대로 사기 치는 영화, 많이 못 봤다.

3 '아수라', 지옥도를 보여주마



지난 해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어벤져스'로 불렸던 주역들이다. 정우성,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 정만식이 뭉쳤다. 그림 한 번, 묵직하구나. '태양은 없다', '비트'의 김성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부당거래', '신세계'의 사나이 픽쳐스가 제작에 나선 영화로 지옥 같은 세상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나쁜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김성수+사나이픽쳐스+지옥도' 세 가지 조합에서 감지할 수 있겠지만, '애들은 가라!' 영화다. 진짜 어른들의 질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배우들의 변신이다. 정우성이 '멋짐'을 잠시 벗고, '생활'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에서 "지겹다는 편견을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황정민은 이번 영화에서도 당신을 편견을 부수지 않을까 싶다.

UP 애들은 가라! 아마도, 진짜 어른들의 영화
DOWN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 팝콘 무비를 선호하는 관객의 입맛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

4 '가려진 시간', 엄태화를 기억해



단편 '숲'과 장편 독립영화 '잉투기'로 괴물신인 감독이란 평가를 받은 엄태화 감독의 첫 상업영화 데뷔작이다. 과연 그의 재능이 상업영화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를 세 번이나 쓸 정도로 정말로 궁금하다.
영화는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갔다가 다음날 혼자 구조된 소녀와 며칠 후 훌쩍 자라 나타난 소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판타지 멜로다.
한국에서 척박한 장르로 평가받는 판타지 멜로물이 '가려진 시간'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까.
소년을 연기하는 강동원 역시 궁금하지 아니한가.

UP (독립영화계에서 검증 받은) 엄태화
DOWN (상업영화에서 검증된 게 없는) 엄태화

5 더 킹', 왕이 되고 싶었던 남자



그러니까, 상영시간 내내 눈이 호강할 그런 영화다.
한국영화계에서 대표 조각남이라 불리는 두 남자, 조인성과 정우성이 만난다? 이들이 한 프레임이 담기면 어떤 그림일까. 행여 '잘생김'이 흘러넘쳐 느끼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걱정도 필자였다.
사진이 공개될수록 기대감만 증폭될 뿐이다.
여기에 류준열의 조합이 흥미롭다. '잘생김을 연기한다'는 다소 독특한 평가를 받고 있는 류준열이 조인성–정우성과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더한다.
영화는 한민국을 주름 잡는 상위 1% 권력자들과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일대기를 다룬다.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2년간 기획하고 연출을 맡았다.

UP 네! 눈이 호강할겁니다
DOWN 연기 앙상블이 어떨지는, 감이…

6 '고산자, 대동여지도', 요리 대신 지도를 그릴 시간



차줌마 차승원은 잠시 잊어야 할 것 같다.
요리하는 차승원 대신, 지도 그리는 차승원을 만날 차례다. 그가 선택한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조선 팔도의 진짜 모습을 지도 속에 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권력과 운명, 시대에 맞섰던 고산자 김정호의 감춰진 이야기를 다룬다. 물론 차승원이 김정호를 연기했다.
소설가 박범신의 17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인 장편소설 '고산자'를 원작으로 한 영화의 메가폰은 강우석 감독이 잡았다.

UP 대한민국 팔도절경 구경하세
DOWN 전국 산해진미 등장 예상. 차줌마 생각나면 낭패…



7년차 징크스? 어게인 러키 7!

"5-1=0"이라는 기이하고 감동적인 등식이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의 아이돌 그룹들은 쉽게 영원을 맹세했고 팬들 또한 쉽게 그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요즘엔 다르다. 팬들은 이제 영원을 믿지 않는다. 다만 두려워할 뿐이다. 마의 7년을.

2016년 상반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지난 1월 카라 컴백을 시작으로 비스트, 미쓰에이, 투애니원 등 여러 아이돌 그룹이 팀 해체 혹은 멤버 탈퇴를 겪었다. 그러나 변화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하반기, 팀을 떠난 혹은 떠나보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활동 전망을 분석해봤다.

계약만료 앞둔 7년차 아이돌 그룹 '지각변동'
비스트 장현승·미쓰에이 지아 등 탈퇴 '홍역'
f(x)·시크릿·티아라 재계약 가능성 '파란불'

공민지·현아 하반기 출격… 홀로서기 시동
'미쓰에이' 재계약 앞두고 개별활동에 전념
'비스트 탈퇴' 장현승, 엠넷서 예능돌 도전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데뷔 7년 차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는다. 가장 큰 원인은 재계약 불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연기자 또는 가수와 7년을 초과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연차가 쌓일수록 멤버별 개인활동 성적이 드러나고 가요계 세대교체의 태동이 시작된다. 팀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가 한둘이 아니란 의미다.

올해는 2009년을 전후로 데뷔한 아이돌 그룹들이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끝난다. 재계약 스코어는 다소 처참하다. 지난 1월 카라 해체를 시작으로 장현승(비스트), 지아(미쓰에이), 공민지(투애니원)가 팀을 떠났다. 가장 최근에는 포미닛이 해체 소식을 알렸다.

아이돌 시장의 지각변동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레인보우, 비스트, 시크릿, f(x), 엠블랙, 티아라 등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재계약을 공표한 이는 아무도 없다. 말인즉슨 하반기에도 가요계에는 한 차례 해체 혹은 탈퇴 바람이 불 것이란 뜻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팀은 비스트다. 비스트는 오는 9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다. 재계약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미 한 차례 멤버 이탈을 겪은 데다 최근 큐브엔터테인먼트 설립자 홍승성 대표가 사임했다. 비스트는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투어와 함께 이번 음반 준비를 병행하다 보니 (재계약) 얘기를 많이 나누진 못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반면 f(x)는 재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설리가 팀을 탈퇴하는 등 한 차례 소동을 겪긴 했으나, 이후 발매한 '포 월즈(4 Walls)'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4인 체제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시크릿은 올해 10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다. 완전체 활동은 지난 2014년 8월 발표한 '시크릿 섬머(Secret Summer)'가 마지막이고 현재 개인활동에 주력하는 중이다. 다만 지난해 4월 일찌감치 재계약 논의를 진행했던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티아라는 지난 2012년 '왕따' 논란으로 인해 인기가 풀썩 꺾였다. 지연, 은정, 효민 등의 솔로 음반 역시 시원치 못한 반응을 얻었다. 변수는 중국 내 인기.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이것이 티아라의 존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레인보우는 멤버들 간의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재계약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활동 성적이 시원치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엠블랙은 지오와 미르가 군 복무 중인 데다 승호 역시 연내 입대를 앞두고 있어 재계약 논의는 잠정 보류될 전망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모험 대신 안정"… 현아, 8월 컴백

현아는 오는 8월 1일 솔로 음반 '어썸(A'wesome)'을 발매한다. 정식 음반은 아직 베일을 벗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흔적이 감지된다. 타이틀곡 '어때?'는 강렬한 트랩 힙합 장르의 곡으로, 앞서 '빨개요', '잘나가서 그래'를 통해 호흡을 맞췄던 서재우 작곡가의 작품이다. 콘셉트 역시 그동안 이어온 섹시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탈퇴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솔로 음반이다. 이번 음반 성적에 따라 솔로 가수로서의 자질 평가가 이뤄질 텐데, 혹시라도 전작의 성과에 못 미친다면 현아에겐 타격이 크다. 서재우, 트랩힙합, 섹시.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조합인 만큼 큰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쓰에이, 개별활동 집중

지아가 빠진 미쓰에이는 당분간 개인활동에 주력한다. 수지는 현재 KBS2 '함부로 애틋하게'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다. 페이는 최근 솔로곡 '괜찮아 괜찮아 판타지'를 발표하고 각종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 민의 거취가 불분명하다. 지난해 '컬러스(Colors)' 발매 이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는 9월 예정된 JYP네이션 콘서트가 현재까지 알려진 민의 스케줄 전부다. 내년 상반기 수지와 민의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미쓰에이의 존속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공민지, 하반기 솔로 출격

지난 4월 YG와 결별한 공민지는 이후 백지영이 소속된 뮤직웍스에 새둥지를 틀고 솔로 출격을 준비 중이다. 최근 활동명을 '민지'로 바꾸고 하반기 컴백을 목표로 곡을 수집하고 있다. 아직 음반 콘셉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공민지의 최대 장점인 퍼포먼스를 살리는 곡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공민지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댄스, 발라드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곡들을 접하면서 신곡을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승, '힛 더 스테이지' 복귀 신호탄 될까

장현승은 지난 24일 Mnet '힛 더 스테이지' 녹화에 참여했다. 팀 탈퇴 이후 첫 공식 활동. 그러나 솔로 음반 발매 등 컴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는 상태다. 과연 '힛 더 스테이지' 출연이 장현승의 활동 복귀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나아가 오는 10월 말 예정된 재계약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



비슷한 예능 피곤해요… 아류는 이제 그만!

방송사 '예능 개혁' 바람

'복면가왕' 성공에 '신의 목소리'·'듀엣가요제' 편성
방송사마다 황금시간대 음악예능 배치 위기 불러
SBS '스타킹' 등 폐지 신규 파일럿 프로 전면으로
개편 칼바람 후 완전히 새로운 예능 만들기 도전

지난해 4월, 예능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프로그램이 있다. 설 파일럿을 거쳐 정규 편성에 성공한 MBC '복면가왕'과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하 마리텔)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그동안 '외국인 예능', '육아 예능' 등으로 점철된 예능계엔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복면가왕'은 편견 없이 목소리로만 대결하는 포맷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짐체 중이던 '일밤'을 살린 구세주가 된 '복면가왕'은 신선함을 기저에 깔고 '클레오파트라' 김연우, '땡벌' 육성재, '오골계' 산들 등 눈에 띄는 스타들을 배출하며 '나는 가수다' 이후 끊겼던 음악예능의 전성기를 부활시켰다. 최근에는 국카스텐 하현우가 '우리동네 음악대장'으로 9연승의 신화를 쓰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복면가왕' 성공에 방송사들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과거 JTBC '비정상회담'을 필두로 외국인 예능이 인기를 끌자 각 방송사에서 프로그램마다 외국인을 배치했던 것처럼, 또 비교적 최근 '쿡방'이 대세 반열에 오르자 요리 방송이 도처에 퍼졌듯, 이번엔 음악예능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SBS는 '보컬 전쟁-신의 목소리'(이하 신의 목소리), '판타스틱 듀오' 등 일반인을 배치시킨 음악 경연 예능을 론칭했고 MBC도 일반인과 가수의 콜라보레이션을 표방하는 '듀엣가요제'를, tvN과 JTBC는 각각 '노래의 탄생'과 '슈가맨'·'히든싱어'·'걸스피릿' 등을 새롭게 편성했다.

다수의 음악예능은 저마다의 콘셉트를 내세우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꿈꿨지만, 이는 결국 시청자 피로도를 높인 결과를 낳았다. 방송사마다 황금시간대에 음악예능을 배치하다 보니 시청자에게 큰 차별성을 주지 못하게 됐다. 결국 '음악예능'으로의 편중은 예능계 자체에 위기론을 불러왔다.

사실 이런 경향은 예능계에서 꽤 비일비재한 일이다. 앞서 외국인 예능, 육아 예능과 쿡방이 인기를 얻자 이에 편승한 '아류 느낌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 걸 봐왔지 않은가. 이에 대해 한 방송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없는 만큼 제작비를 투자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걸 선호하는 시청 경향도 비슷한 예능이 생기는 것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가에서는 예능 개혁 바람이 심심찮게 불어오고 있다. SBS의 경우 '스타킹', '신의 목소리', '동상이몽', '오 마이 베이비' 등을 폐지하고 신규 파일럿 예능들을 대거 편성했다. '인생게임-상속자', '셀프디스코믹클럽 디스코', '꽃놀이패',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운우리새끼) 등 새 파일럿 예능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사로잡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미운우리새끼'의 경우, 수요일 심야 예능 최강자인 MBC '라디오 스타'를 꺾고 단숨에 1위를 거머쥐는 저력을 발휘했다. '인생게임-상속자'도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포맷에 대해 시청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슷비슷한 예능의 시대가 저물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 차례 개편 칼바람이 지나간 SBS는 새로움을 찾고자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MBC의 경우 시청률과 화제성을 이유로 교양 다큐인 '고향이 좋다'와 장수 예능 '해피 타임', '찾아라 맛있는 TV' 등을 폐지했고, KBS는 논란으로 인해 '나를 돌아봐', '어느날 갑자기 - 외.개.인' 등을 폐지했다. 지금이야말로 작년의 '복면가왕'과 '마리텔'같은,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다.

김예슬 기자 yeye@

예능 MC 기상도

'유느님' 흔들 새 1인자 누구?

예능 MC 세대교체는 이뤄질 수 있을까. 상반기 주춤했던 예능 성적표와 함께 예능인들의 기상도도 맑음과 흐림을 오갔다. 신흥 예능 1인자는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DOWN-'유·강' 시대는 갔나요 = 유재석과 강호동이 번갈아가며 방송사 연예대상을 휩쓸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이제는 까마득한 과거로 느껴질 정도다. 유재석이 맡았던 프로그램 중 올해 상반기에만 JTBC '투유프로젝트-슈가맨', SBS '동상이몽-괜찮아, 괜찮아'가 폐지됐다. 강호동도 주춤하긴 마찬가지다. 복귀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대표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SOSO-김구라, 이경규도… = 대상의 저주일까. 지난해 MBC '연예대상' 대상을 거머쥔 김구라도 올해엔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일밤-복면가왕', '능력자들' 등을 화제작으로 올려놓은 지난해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반응이다. 하반기엔 다를 수 있을지 여전히 전망하기 어렵다. 이경규는 MBC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마이리틀텔레비전' 등에 출연하며 여전한 예능감을 과시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이 진행했던 KBS2 '나를 돌아봐', 딸 예림 양과 함께했던 tvN '예림이의 만물트럭'은 폐지됐다. 하반기엔 방송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UP-훨훨 날아라, 신흥 예능 대세 = 주춤해진 예능 대가들의 빈자리를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이들이 있다. 양세형은 MBC '무한도전'에 연달아 출연하며 제7의 멤버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J, MC, 리얼리티프로그램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다. 양세형과 함께 JTBC '잘 먹는 소녀들'의 MC로 활약하고 있는 조세호 역시 차근차근 기반을 다진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예능인으로 꼽힌다. '잘 먹는 소녀들', '걸스피릿' MC로 연달아 발탁되는가 하면, MBC '우리결혼했어요'에서 보여준 다정한 모습은 여성 시청자들에게도 호감을 사고 있다. 하반기에도 조세호가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탁재훈과 이상민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엔 지각, 거만함의 아이콘이었던 탁재훈과 이상민이 달라졌다. Mnet '음악의신'으로 '예능의신'에 등극한 이상민, 돌아온 '예능의신' 탁재훈이 하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김소연 기자 sue123@



유재석 '슈가맨'·'동상이몽' 폐지… 강호동 복귀 3년 대표작은 아직
'무한도전' 새 멤버 거론 양세형… '우결'로 호감 얻은 조세호 날개

MBC 월화드라마 호흡 짧아진다

50부작 관행 깨고 미니시리즈 '캐리어를 끄는 여자' 편성

tvN에 드라마 주도권 뺏겨
로코·장르물 등 다양한 시도


MBC '몬스터'

흥행 주도권을 빼앗긴 MBC가 칼날을 갈았다. 그동안 감각적인 드라마를 배출한 MBC는 한때 트렌디한 작품의 선두주자였다. 하지만 실험적인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케이블채널 tvN의 선전에 매력이 반감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흥행 주도에서 밀린 MBC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황금시간대인 월화 밤 10시에 호흡이 긴 50부작 드라마를 편성해왔지만, 배우 최지우 주연의 미니시리즈 '캐리어를 끄는 여자'로 반등을 노린다.

KBS가 정통사극에 강한 드라마라면 MBC는 역사적 사실과 픽션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현실감과 극적인 재미까지 챙겼다. 무게감만 지닌 사극이 아닌, 로맨스와 퓨전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나름의 경쟁력을 지녔다. 또 사극의 특성상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에피소드가 많은 만큼 50부작의 길이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적절했다. '마의', '구가의 서', '불의 여신 정이', '기황후, '빛나거나 미치거나', '화정'에 이르기까지 그간 월화극 시간대에 사극 드라마가 주로 선보여진 이유다.

월화극으로 대형 사극을 즐겨 편성했지만 MBC는 사극 대신 50부작 현대물을 내놓으며 장르적 변화도 꾀했다. '화려한 유혹'에 이어 총 50부작인 현대물 '몬스터'가 그렇다. 성유리 강지환 주연의 이 드라마는 본격적인 복수를 계획하며 이야기의 전개를 흥미롭게 끌어가고 있지만, 아쉽게도 한 방은 없다. 방송 분량에 맞추기 위해 복수극의 긴장감과 흐름이 끊어질 때가 있다. 이러한 복수극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해 오히려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

MBC는 편성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층의 섭렵과 흥행을 노렸지만, 몇 개의 작품이 선보일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MBC는 하반기 월화 드라마에 그동안 50부작의 장편극을 선보였던 관행을 깬다. 대신 '캐리어를 끄는 여자'를 시작으로 젊은 감성의 미니시리즈 등 다양한 작품을 편성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요즘은 50부작을 끌고 가는 게 모험이 될 수 있다. 앞부분을 놓치면 맥락을 이해하기 버거워 시청하는 데 부담이 생긴다. 주말드라마는 좀 더 단순한 구성과 스토리 라인을 차용해 몇 주 건너도 쉽게 따라가지만, 흐름을 중요시하는 평일 드라마는 감정선을 따라가며 얻는 재미가 크다. 또 요즘은 묵직한 주제보다, 밝고 개성 있는 로맨스 작품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대중의 큰 호응을 얻는 로코물이나, 장르물은 스토리상 50부작으로 이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MBC의 긴 호흡 드라마가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 말했다.

서현진 기자 sssw@

스타작가들 하반기 편성 마무리
드라마 시청률 전쟁 볼만하겠네

'태후' 김은숙 작가 12월 '도깨비' 컴백
'별그대' 박지은 작가도 전지현과 재회


김은숙 작가



박지은 작가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로 2016년 드라마 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믿고 보는 스타 배우에 감칠맛 나는 스타 작가의 글발까지 더해진 '태후'는 시청률 40%에 육박하는 큰 인기를 보이며 '태후' 신드롬까지 낳았다.

'태후'로 커진 드라마 시장의 파이는 '태후' 종영과 함께 줄어들었다. 후속 드라마들이 시청률 10%대를 맴도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다시 반전될 전망이다. '도깨비'로 컴백을 선언한 '태후' 김은숙 작가부터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전지현과 재회하는 박지은 작가까지, 하반기 드라마 시장이 스타작가 라인업으로 촘촘히 구성됐다.

가장 먼저 선을 보이는 건 '파스타' 서숙향 작가의 신작 SBS 새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이다. 8월 중 첫 방송을 앞둔 '질투의 화신'은 공효진, 조정석, 이미숙, 이성재 등 화려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서숙향 작가가 전작 '미스코리아', '파스타' 등으로 로맨틱 코미디에서 저력을 보여왔던 만큼 이번 신작을 통해서도 안방극장에 남다른 설렘 기류를 전달할 예정이다.

'질투의 화신'에 이어 박지은 작가의 '푸른 바다의 전설'(가제)은 11월 편성을 마쳤다. 연이은 수목극 부진에 골머리를 앓던 SBS의 히든 카드다. '프로듀사', '별그대', '넝쿨째 굴러온 당신', '내조의 여왕' 등 매 작품마다 화제성과 시청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온 박지은 작가인 만큼 그 기대 또한 크다. '별그대' 이후 전지현과 재회한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 '별그대' 주역인 김수현과 '프로듀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기에 박지은 작가와 전지현의 만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은숙 작가는 올초 '태후'로 일으킨 대박에 이어 연말에도 신작 '도깨비'로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12월 말 방송 예정인 tvN 새 금토드라마 '도깨비'는 공유, 김고은, 이동욱 등의 캐스팅을 확정지은 상태다.

'상속자들', '신사의 품격', '시크릿 가든', '온에어', '파리의 연인'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낳은 김은숙 작가의 첫 tvN 작품이라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다수의 tvN 드라마가 '웰메이드 드라마'로 흥행몰이에 성공한 만큼, tvN과 김은숙 작가 만남은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 전망이다.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로코킹' 공유와 김은숙 작가의 케미 지수도 관심 요소 중 하나다.

바야흐로 스타 작가의 시대다. 배우의 이름값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스타 작가의 영향력은 드라마를 선택함에 있어 새로운 지표로 떠올랐다. 고정 팬층을 이끌고 있는 작가들의 안방 컴백과 더불어 스타 배우들도 컴백을 선언한 만큼, 2016년 하반기 드라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

“한국 빼어난 골프장 많아… 中골퍼 가득찰 것”

골프&골퍼

박병환 亞 100대 골프장 선정 부위원장

금융위기에 교육사업 접고 골프 비즈니스 시작
외국선수 시드 주는 ‘큐스쿨’ 열며 협회 인연
한 해 라운딩 평균 160회… 사진·후기 남겨
“한국 아름다운 골프 코스 세계에 알리겠다”


아시아 100대 골프장 선정 공동위원장인 리앙 클라우드골프대표와 알리골프 리타이잉 대표, 부위원장 박병환 IGM대표(왼쪽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24일 동안 골프를 라운드 했다면? 아마도 ‘철인(鐵人)골퍼’를 떠올릴 것이다. 무슨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골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차를 몰며 전국 골프장을 찾아다닌다. 강원, 전라, 경상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발이 닿도록 돌아다닌다. 골프장에서는 홀마다 메모를 하고, 사진도 찍고, 코스를 분석하고, 이를 정리해 중국으로 보낸다.

누굴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29일 중국으로 가기 전에 스카이72 골프&리조트에서 그를 만나봤다. 아시아100대 골프장 선정 부위원장 겸 한국 대표를 맡은 박병환(52) 중국 IGM 골프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다. 이번이 3차 한국 방문인 그는 1차는 4월 한국에 와 3개 골프장을 돌았다. 2차는 5월에 24일 동안 연속 22개 골프장을 돌아본 데 이어 이번에는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14개 골프장에서 플레이를 했다. 한국에 오기 바로 전에 중국 위원들과 베이징에서 무려 3200km 떨어진 신장 위그루지역의 우루무치 설련산 컨트리클럽에서 126홀을 돌았고, 이어 칭하이(青海)성의 천유덕 국제컨트리클럽에서 54홀을 마쳤다.

아시아 100대 골프장 선정의 주관은 중국이 한다. 아시아 10대 골프장을 발표해 온 중국 최대의 골프전문웹사이트 알리골프(대표 리타이잉)와 상장사인 클라우드골프(대표 리앙)가 맡았다. 오는 10월 중순 한국에서 아시아지역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100대 골프장 발표와 함께 아시아골프 발전을 위한 포럼도 개최한다.

그런데 박병환 대표는 한국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을 포기,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1993년 영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여기서 골프와 인연을 맺었다. 골프장 인근에 살던 친구 덕에 골프에 입문했다. 7번 아이언으로 볼을 몇 개 쳐봤고, 10분 후 바로 필드로 나가 머리를 얹었다. 중국에 발을 디딘 것은 2004년 하얼빈의 공정대학 교환교수로 가면서부터. 이듬해 베이징으로 이사하면서 허베이(河北)성 랑팡의 동방대학성 컨트리클럽에서 교육사업과 함께 본격적인 골프 인생을 맞았다.

“2008년 중국은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유학사업이 전환기였죠. 환율 폭등으로 인해 저렴한 맛에 오던 조기유학업계가 융단 폭격을 맞았습니다. 이때다 싶었죠. 교육사업을 접고 내가 좋아하는 골프관련 비즈니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때로 인생은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도 되지만 떠밀려서 바뀌기도 한다. 그가 그랬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좋고 행복한 일이 돼 버렸다. 그는 2011년 중국 프로골프가 외국선수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퀄리파잉(Q)스쿨을 치르게 된다. 큐스쿨 기간 중 한국 및 외국선수들 영어통역을 맡았다. 그는 중국프로골프협회와 중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외국선수 20명에게 시드를 주는 큐스쿨을 열면서 양 협회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참 부지런하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프리미엄 경제지 이투데이 중국특파원인 그는 골프전문기자와 골프장 탐방 및 평가 전문가로 활동한다.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200여 개 골프장을 돌아보고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이 때문에 그와 함께 플레이하는 동반자는 정신이 없다. 사진 찍고 홀마다 특징을 기록한다. 그리고 샷을 하니까 남들보다 엄청나게 바쁘다. 그렇다고 볼을 못 치는 것은 아니다. 잘 친다. 80타대는 늘 유지한다.

“같은 골프장을 다시 갈 때도 사진 기록을 남기죠. 이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풍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골프장이 멋지게 변합니다. 이 때문에 골프는 ‘세월과 인생’의 맛과 멋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게 하는 최고의 스포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지난해 베이징을 제외한 지역의 90개 골프장에서 플레이를 했다. 대부분 36홀을 돈다. 평균 1년 라운딩은 160회 정도이다. 이렇게 골프장을 찾아 라운드를 한 뒤 쓰는 후기와 일지는 그에게 어느새 큰 자산이 되고 있다.

그는 골프 원고를 기고하면서 중국 및 홍콩, 마카오 등 중요한 골프대회는 모두 초청받아 간다. 중국 유일의 블루베이 LPGA를 비롯해 BMW 마스터스 등 1년에 20여 차례 이상의 중국 내 큰 대회에 취재를 다닌다. 그리고 90여 개의 골프장 탐방 등으로 1년 365일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특히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린 프레지던츠컵 대회의 소개책자의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잊지 못할 추억거리다.

그가 한국골프장을 돌아 본 소감이 어땠을까.

“한국에 이렇게 풍광이 아름답고 디자인이 빼어난 골프장들이 많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명문으로 알려진 골프장만 플레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 어디에 선보여도 절대로 손색이 없는 골프코스들입니다. 이런 골프장들을 이번에 외국 언론에 널리 알려 외국의 보다 많은 골퍼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들어가면 아시아 지역 골프장을 순회한다. 일본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도 100대 골프장 선정위원들과 함께 오는 8월 실사를 할 예정이다. 그는 “얼마전 아시아 100대 골프장 선정 공동 위원장인 리타이잉과 리앙이 한국에 와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컨트리클럽과 경남 남해의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을 돌아 본 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며 “미래에는 아마도 한국 골프장에 중국인들로 꽉꽉 채워질 날이 올 것“이라며 한국 골프장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골프홀릭’ 박병환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골프장과 지치지 않는 체력, 그리고 하루 25시간이었으면 하는 것일는지 모른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골프여제’ 박세리, 마지막 프로 무대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홍보대사로



LPGA KEB 하나은행챔피언십 함영주 대회장으로부터 위촉패를 건네받는 박세리 프로.
사진제공 KEB하나은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는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명동본점 대강당에서 ‘골프여제’ 박세리의 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로 11년째 이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27일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 박세리의 은퇴 무대 마련 및 이 대회에서 골프팬과 동료 선수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세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돼 기쁘다. 이번 대회가 아마도 마지막 대회가 될 것 같은데, 한국 선수와 문화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KEB하나은행이 글로벌 은행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걸맞은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대회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기념비적인 대회이자 ‘골프여제’ 박세리 프로의 마지막 무대인 만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라 4일간 5만 명 이상의 갤러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물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길의 화윤권 엿보기

수도권 골프장 회원권 시세
(2016년 7월 27일 기준, 단위:만원)



골프장명	전주시세	금주시세	등락
88cc	9,300	9,250	-50
골드	5,000	5,000	0
그린힐	8,500	8,500	0
기흥	9,300	9,300	0
김포	6,900	6,900	0
남부	65,000	65,000	0
남서울	13,100	13,100	0
남촌(분50000)	40,000	39,000	-1,000
뉴서울	11,250	11,300	50
뉴스프링빌(분12000)	11,500	11,500	-
뉴코리아	8,550	8,550	0
덕평힐뷰	3,000	3,000	0
레이크사이드	37,000	37,000	0
레이크우드	5,000	4,900	-100
리베라	3,600	3,600	0
몽베르(분7000)	4,500	4,500	0
블루헤런	8,200	8,200	0
비에이비스타(무기명)	30,000	30,000	0
비전힐스	33,000	33,000	0
서서울	7,200	7,200	0
서울	28,500	28,500	0
솔모로	3,800	3,800	0
송추	18,500	18,500	0
수원(주주)	7,350	7,350	0
아시아나	19,500	19,300	-200
여주(주식)	2,350	2,350	0
이스트밸리	58,000	58,000	0
이포	3,050	3,050	0
인천국제	4,950	4,900	-50
제일	11,000	11,000	0
중부	7,200	7,200	0
태광	5,900	5,900	0
플라자	3,950	3,950	0
한성	6,200	6,200	0
한양	14,400	14,400	0
한원	2,900	2,900	0

김영란법에 굳은 회원권 거래
법인 선호 무기명은 매매 증가

골프회원권 시장이 휴가철을 맞아 약보합세를 이루면서 매매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원권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약세장에서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실질 구매자들이 주춤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 김영란법을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골프장들은 오히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과 고객맞춤 회원권 상품들을 대거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졌고 대다수 골프장들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로 인해 회원권 시장도 2016년 초부터 줄곧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회원권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기명 개인 회원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이에 법인업장들이 선호하는 무기명 회원권의 매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접대나 직원 복리후생 개념에서 법인 회원권 수요가 늘어 난데다 회원권 반환을 대신해 무기명 회원권이 그 대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 회원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한국 골프특성 및 정서상 무기든, 기명이든 회원권을 필요로 하는 층은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부회원권(www.dbm-market.co.kr) 애널리스트

김동하의 사이언스골프레슨

슬라이스·훅 미스 샷… 한방에 해결하기



요즘 강남에서는 20·30세대들의 젊은 골퍼들이 크게 늘어 골프레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상담해보면 젊은 감각에 맞게 스윙 폼을 멋지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다.

옳은 얘기다. 골프는 스윙 폼이 멋있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포커스를 그쪽에만 치우치게 잡는 것은 반대다. 기본기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이기를 조언한다. 어차피 기본기가 잘돼 있으면 스윙 폼은 덤으로 얻어지기 때문이다.

기본기가 부족하면 아무리 스윙 폼이 멋있어도 미스 샷을 달고 살게 된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필드에 나가보면 첫 샷부터 시작되는 슬라이스 때문에 공포감마저 들 때가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18홀 내내 이놈의 슬라이스가 이어져 기분까지 완전히 망치는 악몽 같은 경험이 한 번쯤 있었을 것이다.

기본기 부족과 이로 인한 오류를 즉석에서 고칠 수 있는 자가 수정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초보 골퍼들은 대부분 슬라이스 구질을 가지고 있다. 원인은 스윙 습관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수정할 능력을 갖춘다면 이런 오류는 쉽게 고칠 수 있다.

오늘은 슬라이스나 훅을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필드에서도 응급으로 스윙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구질은 타이밍과 스윙 궤도 등 여러 가지 동반되는 영향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볼 컨텍트(ball contect)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힙턴(Hip Turn·엉덩이 돌리기) 타이밍이 너무 빠르거나, 릴리스가 늦으면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되고, 손목 코킹이 풀리는 캐스팅이 심하거나 과도한 릴리스, 엎어치기 등은 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올바른 볼 콘택트를 위한 스윙 이미지가 필요하다.

일단 얼라이먼트 스틱을 하나 준비해서 클럽과 함께 잡고 어드레스를 취한 다음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임팩트까지 연습 스윙을 해본다. 실제 스윙은 자칫 다칠 수 있으니 이미지 스윙만 하기를 권한다.

정상적이라면 임팩트 시에 스틱이 자신의 옆구리를 동시에 치게 될 것이지만, 슬라이스를 자주 내는 스윙 타입이라면 왼팔이 뒤로 당겨지면서 스틱이 옆구리를 치지 못하고 스틱은 바깥으로 빠져 있을 것이다. 반대로 훅을 자주 내는 스윙 타입이라면 임팩트 전에 먼저 스틱이 자신의 옆구리를 강하게 치게 된다. 임팩트 시에 얼라이먼트 스틱이 자신의 옆구리를 동시에 치게끔 연습한 다음 실제 샷을 할 때도 스틱을 같이 잡고 있다고 믿고 스윙해보면 슬라이스와 훅을 한 방에 잡아 통쾌한 스트레이트 샷을 맛보게 된다.

평소 슬라이스나 훅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골프연습장에 가서 연습할 때 곧바로 공부터 치지 말고 이 같은 연습 방법으로 5회 정도 샷을 정렬한 다음 10타 정도 치고 또 다시 점검 후 다시 치고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이미지가 몸에 익어 타깃 중간으로 쭉 뻗는 시원한 스트레이트 샷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이미지 훈련은 필드에서 공을 치기 전에도 즉석에서 연습할 수 있다. 다른 클럽을 스틱 삼아서 연습할 수도 있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길기 때문에 샤프트 중간 부분을 잡고도 같은 느낌으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샷 전에 한 번 이렇게 연습하고 해보는 것도 미스샷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습을 할 때 임팩트에서 공을 치는 순간 스틱도 자신의 옆구리를 치도록 해주고, 그때 클럽헤드가 스퀘어가 되도록 체크해 주길 바란다. 또 임팩트 이후에는 클럽헤드가 닫히도록 즉 자연스럽게 양팔을 X자로 교차해 팔로스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사이언스골프아카데미 원장

한국 고대사, 끝나지 않은 전쟁

⑥ 낙랑군은 평양에서 요동으로 이동했는가

사료로도 입증할 수 없는 '교군설'은 공상

〈僑郡·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요동으로 이사〉

필자는 90년대 초반 중국 서점에 처음 갔을 때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이 문고판으로 판매되는 것을 보았다. 주로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발간했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簡體字)가 아니라 옛날부터 쓰던 번체자(繁體字) 서적들이었다. 이런 사료들만 간체자가 아니라 번체자로 간행하는 데서 고대 사료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시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기'등의 고대 사료들을 사모았다. 이는 작게 보면 책을 좋아하는 한 개인의 행위지만 크게 보면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행위였다. 이른바 강단사학계의 사료 독점이 깨지는 현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어느 개인이 '사기' '한서' '자치통감(資治通鑑)' 같은 중국 고대 사료들을 소장할 수 있었겠는가? 1990년대 초만 해도 중국 서적들의 가격은 쌌고, 필자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던 여러 사람들이 중국 고대 사료들을 사 모았다. 여기에 인터넷

강단사학계 '中 사료 독점' 자신들 논리 합리화
'한사군=한반도설'을 정설로 유지하는데 급급
中 고대사료 쉽게 접하고 인터넷 공개되며 반전

낙랑군 위치는 평양이 아니라 현재 하북성 일대
미천왕 때 고구려 요동점령…낙랑 6만 가구인데
장통의 1000가구 이주로 그리 말할 수 있을까

이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 크게 바뀌었다. 문고판 서적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도 중국 25사를 주석까지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강단사학계가 수세에 몰리는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이런 사료들을 자신들만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만 발췌해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 즉,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 이론들을 실증사관이란 이름으로 해방 후에도 하나뿐인 정설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중국 고대 사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수세에 몰렸다.

식민사관의 핵심이론 중의 하나인 '한사군=한반도설'을 입증하는 중국 사료는 전무하다시피한 반면 한사군이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사료가 속출했다.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학계였다면 '한사군=한반도설'은 이미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중국에서 왔다는 기자(箕子)를 높이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만들었고 조선총독부에서 악용한 '한사군=한반도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기존의 논리를 수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식민사학계에게 '한사군=한반도설'은 이미 사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상대



적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 도그마였다.

그러나 한사군, 특히 낙랑군이 식민사학계의 주장처럼 평양 일대가 아니라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사료가 수십 개 이상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료들이 말하는 사실에 대해 무언가 설명해야 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교군설(僑郡說)'이다. 교군설이란 간단하게 말해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요동으로 이사했다는 것이다. 강단사학계는 한사군의 중심이라는 낙랑군 조선현의 자리를 평양 남쪽의 대동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국 사료들은 낙랑군 조선현이 있던 자리를 지금의 하북성 노룡(盧龍)현이라고 말한다. 교군설은 개인으로 말하면 평양 대동면에 살던 '조선'이 하북성 노룡현으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조선'의 주민등록등본에 지금은 하북성 노룡현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평양 대동면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북성 노룡현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는 중국 사료는 많지만 그 전에 평양 대동면에 살았다는 사료는 없다는 사실이다. 교군설 자체가 사료로는 입증할 수 없는 공상이란 뜻이다. 그러나 식민사학계는 사료에 낙랑군이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 진위를 살펴보자. 송나라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 권88, 진기(晋紀) 10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건흥 원년(313) 4월 요동 사람 장통(張統)은 낙랑(樂浪)과 대방 두 군을 점거하고 고구려왕 을불리(미천왕)와 해를 이어 서로 공격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낙랑인 왕준(王遵)이 장통을 설득해서 그 백성 1000여 가구를 통솔해 모용외(慕容廆)에게 귀부하니 모용외는 낙랑군을 설치해서 장통을 태수로 삼고 왕준을 참군사(參軍事)로 삼았다."

요 동사람 장통이 낙랑과 대방 두 군을 점거하고 고구려 미천왕과 싸웠는데,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낙랑 사람 왕준의 설득을 들은 장통은 1000가구의 백성을 데리고 선비족 모용씨에게 귀부했다는 것이다. 선비족 모용외는 창려(昌黎) 극성(棘城) 사람으로 전연(前燕)의 건국자 모용황의 부친이다.

그러나 이 사료는 첫째, 고구려 미천왕 때 장통이 점거했다는 낙랑군과 대방군은 평안남도나 황해도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천왕 때라면 고구려가 이미 요동반도는 물론 그 서쪽 상당 부분까지 차지한 상태였다. 낙랑군이 평양지역에 있었다면 장통이 1000가구를 거느리고 자국 영토를 지나 지금의 베이징 부근인 고대 요동에서 활동하던 선비족 모용씨에게 가는 것을 눈 뜨고 구경하고 있었겠는가?

둘째, 1000가구의 낙랑인이 이주한 것을 가지고 낙랑군 전체가 이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낙랑군의 인구에 대해 '한서지리지' 낙랑군 조는 "6만2812호에 40만6748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략 한 가구의 구성원이 7명 정도라는 이야기다. 즉, 장통이 거느리고 간 1000가구는 7000명 정도라는 뜻이다. 40만7000여 명의 낙랑인 중에 7000명이 이주한 것을 낙랑군 전체가 이주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나머지 40만 명은 어디로 갔나?

식민사학의 논리라는 것은 이처럼 조금만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장통이 점거했다는 낙랑, 대방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 고구려가 단군 조선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던 낙랑, 대방을 공격하자 장통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따르는 1000가구만 거느리고 고대 요동의 모용씨에게 귀부한 것이다. 나머지 낙랑인들은 계속해서 하북성 낙랑지역에 살고 있었다. 낙랑군 1000가구가 귀부하자 모용외는 낙랑군이란 명칭을 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던 적이 없고, 따라서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이주한 적도 없다. 중국의 어느 사료에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덕 일
한가람연구소 소장

숭실대에서 역사학으로 학위를 받은 필자는 뚜렷한 관점과 흡입력 있는 문체로 한국사의 핵심 쟁점들을 명쾌하게 풀어냄으로써 역사 대중화와 동시에 한국역사서 서술의 전환을 이뤄낸 우리 시대의 대표적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며, 시대와 인물을 읽어내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고 있다.



맥주와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점 '북바이북' 내부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책과 함께 맥주·커피… 서울서 즐기는 도심 피서

'다시서점'·'책방이음' 등 이색 서점

책과 함께 시원한 주류,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서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서울의 숨어 있는 명소를 발굴해 공유할 수 있는 서울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료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는 독특한 서점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한남동의 낮과 밤이 다른 서점 '다시서점'은 와인, 맥주와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다. 간판도 없고 지하 1층에 있지만,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숨은 명소다. 이 서점을 소개한 시민은 "책 냄새가 솔솔 나서 좋았다"며 "그림이 가득한 책도 많고, 시집도 있다"고 서점의 분위기를 묘사했다.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밝은 조명으로 따스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곳과 조금 어둡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상암동 '북바이북'도 밝은 분위기에서 '책맥'(책과 함께 맥주를 즐기는 것)에 빠져들 수 있다. 이 글을 올린 시민은 "맥주를 마시면서 책을 보는 곳이라 조금 산만한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한 서점이다"고 강조했다. '북바이북'은 정감 가는 손글씨로 책을 소개한 점과 독자들이 직접 책에 대한 소개, 의견 등을 적어놓은 '책꼬리'가 붙어 있는 점으로 매력을 더했다. 적은 인원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지만, 길게 이어진 책상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쓰러질 듯한 책장과 피아노를 활용한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학로에는 연극을 관람하러 가는 일이 많지만, 이곳에도 독특한 서점이 숨어 있다. '책방 이음'은 책과 함께 커피를 팔고 있다. 다양한 책이 비치된 장소 옆에는 '수다공간'과 '전시공간'이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강의나 세미나가 열리기도 하고 전시가 이뤄져 '책방 이음'을 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포스트를 올린 시민은 "대형 서점에 비해 내부가 넓은 편은 아니지만 곳곳에 책을 편히 읽을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이 있어 부담 없이 책을 둘러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서울스토리에는 여행 서적이 가득한 '일단 멈춤', '부비책방', 신발 벗는 만화책방 '익살스런 상상', 고종의 서재 '집옥재' 등 책을 사랑하는 이들을 만족하게 할 다양한 공간이 소개돼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새로 나온 책



중국어로 떠나는 고사성어 여행
이수연/지식과감성/1만3500원

'중국어로 떠나는 고사성어 여행'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중국 베이징사범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연합TV에서 근무했던 저자 이수연이 고사성어를 통해 중국어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다.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고사성어의 유래와 배경 등을 알아보며 자연스레 중국어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고사성어 100개를 선정, 성어 속 고전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어 표현력과 사고력도 키울 수 있다. 부록에는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기타 성어를 의미별로 묶어 실었다. 저자는 "이 책이 사고력을 강화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
에쿠니 가오리/김난주 옮김/소담/1만3800원

'도쿄 타워', '냉정과 열정 사이'의 작가 에쿠니 가오리가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를 출간했다. 이 책은 2년간 일본 여성월간지 '베리'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세 자매의 삶, 연애, 결혼, 사랑 이야기를 다뤄 많은 일본 여성의 공감을 얻었다. NHK에서 '그 남편, 남자 친구'라는 제목으로 드라마화되기도 했다. 느긋한 제목과 달리 책은 평화롭게 흘러가지 않는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첫째 아사코, 순박한 연인과 연애하면서도 다른 남자의 육체적 매력에 쉽게 넘어가는 둘째 하루코, 여러 남자와 깊은 감정 없이 섹스하고 종종 이웃집의 소박한 가정주부를 동경하며 훔쳐 보는 막내 이쿠코 등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세 자매의 이야기가 독자를 사로잡는다.

한여름 무더위 식혀줄 '스릴러 소설 5선'

한 장씩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더위를 가시게 할 스릴러 소설 신작 5선을 꼽아봤다.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비롯해 반전 가득한 살인 사건, 괴이 현상이 끊이지 않는 흉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국, 북유럽, 일본, 한국 소설이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전망이다.



'인형의 집'·'크로우 걸'·'화가'·'장난감 수리공''·부산행'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잠 못 이룬 여름밤 오싹~

M.J 알리지의 '인형의 집'은 헨릭 입센의 고전 명작과 같은 이름을 가진 스릴러 소설로, '이니미니'로 시작되는 여형사 헬렌 그레이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전작과 주인공, 등장인물을 공유하지만, 독립적인 이야기로 다른 책을 읽지 않아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의 소설은 고전 명작에서 제목을 차용하는 등 유머와 비유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 특히 소설 속 범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이코패스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 폭력과 학대에 시달린 아픔을 지니고 있다. 이번 작품은 어느 날 자신의 방이 아닌 서늘하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깨어난 '루비'의 이야기를 다룬다.

범죄수사와 정신분석이 얽혀 펼쳐지는 숨 가쁜 북유럽 스릴러 '크로우 걸'은 근친상간과 아동 인신매매 등 현대사회의 가장 어둡고 변태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드러낸 작품이다. 총 3권으로 이뤄진 이 책은 도덕적 한계를 시험할 소재, 긴박감이 넘치는 범죄 수사, 스릴러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페미니즘적 시선이 섞인 등장인물과 함께 정신분석학적 내용으로 극찬을 받았다. 저자 이름인 에리크 악슬 순드는 스웨덴 작가 예르케르 에릭손과 호칸 악슬란데르 순드퀴스트가 함께 쓰는 필명이다. 두 작가는 깊이 있는 정신분석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아이들이 고통스럽고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때 흔히 찾는 방어 기제로 인해 태어난 다중 인격자들을 그리고 있다. 소설 속 등장인물 중 누가 다중 인격자이며 누가 범인일지 마지막까지 반전을 거듭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한다.

호러와 미스터리, 사실과 허구를 절묘하게 융합시켜 극단적인 공포를 이끌어내는 미쓰다 신조의 최신작 '화가' 역시 독자의 등골을 싸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기시감과 살인 사건을 소재로 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낯선 마을로 이사한 소년이 생전 처음 보는 지역에서 기묘한 기시감을 느낀 뒤 원인을 찾아 나서면서 괴이한 현상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미쓰다 신조의 '흉가', '화가' 등 집 시리즈는 나이 어린 주인공이 낯선 곳으로 이사하면서 벌어지는 괴이한 사건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편안한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사건의 무대가 되고 어린 주인공들이 마음대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점 등이 공포감을 끌어올린다.

20년간 일본 호러 소설 분야에서 명작으로 꼽혀온 '장난감 수리공'도 선을 보인다. '천국과 지옥', '앨리스 죽이기' 등으로 스릴러 소설 팬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고바야시 야스미의 1995년 데뷔작이다. 당시 저자는 '장난감 수리공'으로 제2회 일본 호러 소설 단편상을 수상하며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올라섰다. 실수로 남동생을 죽게 하고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무엇이든 고쳐주는 수수께끼의 장난감 수리공을 찾아간다. 저자는 수리공의 모습과 수리 과정을 섬뜩하게 묘사한 뒤, 충격적인 결말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 책에는 '장난감 수리공'과 함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가 실렸다.

개봉 첫날 128만 명을 동원하며 영화 '명량'(125만7380명)이 2014년 세운 하루 최다 관객 기록을 갈아치운 영화 '부산행'도 소설로 출간됐다. 스크린을 통해 쏟아지는 시각적인 공포와 달리 치밀한 장면 묘사와 섬세한 내면 묘사로 독자에게 색다른 느낌을 준다. 글과 함께 실린 영화 속 장면이 긴박함을 생생하게 더해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현대중공업, 불황·파업에도 깜짝실적 타고 주가 날갯짓

영업익 5572억 전망치 훌쩍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
구조조정 이후 수혜 예상
증권가들 목표가 줄상향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도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달성한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날개를 달았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전날보다 9.57% 급등한 12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12만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는 20% 이상 뛰었다.

현대중공업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컨센서스)를 대폭 웃도는 5572억 원으로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영업이익은 2600억 원 규모의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직전 분기 대비 2000억 원가량 늘었다. 전 분기 적자를 기록한 해양부문의 실적 개선과 정유부문 호조가 어닝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저수익 공사가 마무리되고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익 창출 능력을 회복했다"면서 "수주 모멘텀은 아직 약한 상황이나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응답하듯 현대중공업의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다. 대신증권은 15만5000원으로, 삼성증권은 14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은 당사 커버 조선주 중 유일하게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라며 "업종 내 가장 견고한 재무상태와 비조선 부문을 통한 현금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해양플랜트 영향력이 소멸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부의 장점으로 불황을 견딜 체력이 가장 좋다"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가장 빨리 수혜를 누릴 조선사란 점도 장기적인 투자포인트"라고 분석했다.

현대중공업의 이익 개선세는 다음 분기에도 이어지리란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3600억 원 규모로 컨센서스(2290억 원)을 또 한 번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본격적인 인건비 절감이 시작되면서 분기별 비용이 1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해양 및 정유 부문의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비용절감 효과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HMC證 "배당주 펀드로 안정적 수익"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채권혼합펀드'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 극대화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기 어려운 투자자들을 위해 HMC투자증권이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채권혼합펀드'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펀드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의 단기 트렌드를 좇아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주목하는 펀드다. 시장 상황에 따른 고수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투자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주목하는 한국밸류자산운용의 뚜렷한 운용 철학이 잘 나타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배당주 펀드 투자는 단기적인 스토리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더욱 유리한 상품이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그 자금을 다시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데 장기 투자 시 이 복리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상품은 현재 배당성향이 낮더라도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배당 정책이 확실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비중이 높고 투자하는 종목도 80~100개 종목으로 비교적 분산이 잘돼 있다.

이에 운용 성과도 좋은 편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펀드채권혼합펀드'는 1년 동안 2.51%의 수익을 거뒀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56%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상품을 고를 때는 시장 변화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성과가 유지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시장에 출시된 상품 중에서는 한국밸류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펀드채권혼합'이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일임형 ISA 첫 성적
증권사 수익률 '압승'

상위 30개 상품 중 은행권 2개뿐
계좌이동제 허용… 머니무브 예고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집계 결과 증권사들이 은행권을 제치고 압승했다.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처음 공개한 ISA 모델포트폴리오(MP) 수익률 상위 30위 명단에 은행 MP 2개를 빼고 모두 증권사 상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오는 18일 ISA 가입자가 신탁형, 일임형 등 다른 유형으로 이전하거나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허용되는 만큼 은행권에 쏠린 ISA 고객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자금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15개 증권사의 116개, 4개 은행의 34개 등 150개 ISA MP의 3개월간(4월 11~7월 11일)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증권사가 출시한 상품들이 상위 10위권에 모두 포함됐다. 상위 30위로 범위를 넓혀도 은행권에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고작 두 개 상품만 이름을 간신히 올렸다.

특히 수익률 상위 30위권 MP 상품 중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의 MP가 수익률 1~4위를 싹쓸이했다.

은행이 출시한 ISA 상품들의 성과는 저조했다. 전체 증권사의 MP 평균 수익률은 0.91%로 은행(0.37%)보다 2.5배 높았다.

김경아 기자 kakim@

최석종 KTB투자증권 신임 사장

"IB 틈새시장 공략… 파생상품 진출 자본확충 논의"

이병철 대표이사 부회장도 선임



"해외 신재생산업, 항공기 구조화금융(S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IB(투자은행) 부문에서 특화된 시장을 만들고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이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28일 KTB투자증권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병철 전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48)와 최석종 전 교보증권 IB본부장(55·사진)을 각각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이들을 각각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부회장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최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KTB투자증권을 IB부문 특화 증권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자본 3조~5조 원 규모의 대형사 IB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IB부문에도 틈새시장이 있다"며 "해외 신재생산업, 항공기 SF, 부동산 PF 등 특화시장을 정착시켜 IB 수익모델을 강화하고, 이 부문만큼은 KTB(투자증권)가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NH농협증권 IB본부장, 교보증권 IB본부장 등을 거친 구조화금융 전문가다. 특히 KTB투자증권 부임 전 3년간 교보증권 IB본부장을 지내며 매년 두 배 이상씩 IB부문 흑자 규모를 늘렸다.

KTB투자증권은 최 사장 선임과 맞물려 최근 투자금융본부(전략금융팀·개발금융팀·투자금융팀·복합금융팀·대체투자팀)를 신설하고, 교보증권 IB본부 인력을 대거 수혈했다. 앞서 5월 조현면 전 교보증권 투자금융팀 이사를 투자금융본부장(상무)에 선임했는데, 조 본부장을 포함해 20여 명에 달하는 소속 임직원이 모두 교보증권 IB본부 출신이다.

최 사장은 KTB투자증권의 자본확충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IB부문과 함께 FICC(채권·통화·원자재) 부문에도 관심이 많다"며 "KTB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라이선스(영업인가)가 없는 상황으로, IB 강화와 파생상품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을 주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KTB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4100억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KTB투자증권은 이날 이병철 전 다올임베스트먼트 대표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부동산그룹장, 하나다올신탁 대표,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지낸 부동산금융 전문가다. 이 부사장은 현재 KTB투자증권 지분 9.72%(686만 4832주)를 보유한 2대주주다. KTB투자증권은 "향후 이 부회장은 KTB금융그룹 경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최 사장은 KTB증권의 수익성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TB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별도기준 29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2014년에도 506억 원의 순손실을 지속했다. 지난해 123억 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 결손금만 302억 원에 달한다. 김미정 기자 mj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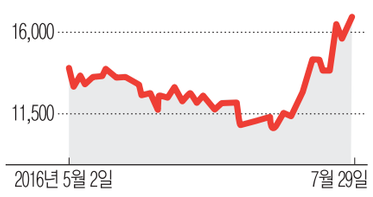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주문폭주' 팅크웨어, 자사주 팔아 공장 키운다

국내외 블랙박스 수요 증가 대비 생산 시스템 효율화 필요
50만주 처분 81억 조달…충주 산업단지 내년 상반기 입주



팅크웨어 주가 추이
(단위: 원)



팅크웨어가 블랙박스 등 밀려드는 수주에 힘입어 공장을 확장 이전한다. 팅크웨어는 자사주 일부를 매각해 공장 확장 이전 비용에 사용할 계획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팅크웨어는 공장 확장 이전에 따른 투자금 조달을 위해 자사주 50만 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

자사주 처분 규모는 보통주 50만 주로 약 81억 원 규모이며,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충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는 향후 2020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광명시에 있는 공장과 물류 센터를 충주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생산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주 신공장은 서충주 신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있으며 용지 2만 9760㎡, 건축면적 1만㎡ 규모로 내년 상반기 완공해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팅크웨어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생산자재·장비 구매,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국내외 블랙박스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대응과 신사업 진출로 인한 생산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공장을 이전할 예정이다"며, "투자금 조달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팅크웨어의 블랙박스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그 결과 북미와 유럽 및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 판매처가 확대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팅크웨어는 현재 북미, 유럽 등 각국으로 블랙박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블랙박스 매출 성장의 요충지인 싱가포르를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부터 공급이 시작된 싱가포르 '도요타'와 일본 '오토박스(Autobacs)'에 이어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예상되는 만큼 당사의 올해 해외 블랙박스 매출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최근 대형차량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수혜도 전망된다. 국내 시장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대형 승합 및 화물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기능이 탑재된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제품의 B2B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김태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3분기 중에는 추가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며 블랙박스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성시종 기자 ssj@

레드로버, '가상·증강현실 테마파크' 만든다

서바이벌·레이싱·극한체험·놀이공원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GO'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레드로버가 자체 보유한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과 지적재산권(IP)을 바탕으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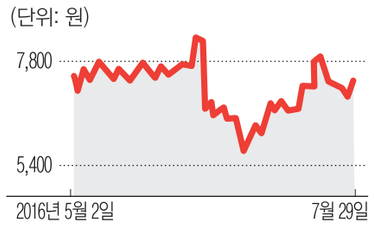
레드로버는 28일 자사가 보유한 AR·VR 장치 및 IP와 국내외 유수 VR 기업들의 기술을 총집결한 VR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레드로버가 구축할 '도심형 AR·VR 테마파크'는 서바이벌, 레이싱, 스포츠, FPS 등 다양한 게임과 롤러코스터나 패러글라이딩, 공포와 같은 극한 체험, VR 놀이 공원 등 다양한 AR·VR 콘텐츠를 집대성한 복합공간이 될 예정이다.

특히 생활주변과 인접한 '도심형 AR·VR 테마파크'는 청소년과 성인, 가족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재방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 레드로버는 이미 특허 출원한 AR 기술과 보유 중인 차별화된 VR 기술을 바탕으로 게임개발사와 연계해 차세대 AR와 VR 게임의 공동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포켓몬 Go와 같은 AR·VR와 GPS 기반을 통한 서바이벌 게임도 공동개발해 여러 명이 일정 공간에서 실감 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레드로버 주가 추이
(단위: 원)



이를 위해 레드로버는 AR와 VR 방식을 결합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HMD(Head Mounted Display)의 특허 출원도 이미 오래전에 완료한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한 IP를 AR·VR와 접목, 다양한 연계사업도 준비할 예정이다. 레드로버는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드물게 해외에서 개봉해 큰 성공을 거둔 '넛잡'을 비롯해 '비트파트', '버블버블마린', '볼츠앤블립', '스파크' 등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중인 IP와 AR·VR를 결합해 해외 게임 개발사들과 함께 포켓몬 GO와 같은 게임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시종 기자 ssj@

에스에너지, 칠레에 태양광 발전소 짓는다

북부지역에 150억 규모 9.3MW급… 내년 4월 완공 예정

태양광 전문 기업 에스에너지가 남부발전과 함께 중남미 대표 태양광 시장 칠레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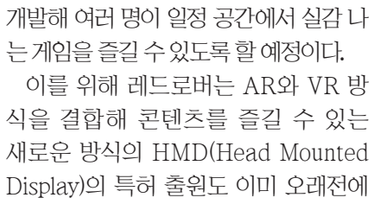
에스에너지는 칠레 북부의 디에고 데알마그로(Diego de Almagro) 지역 9.3M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사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약 15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착공은 10월이며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칠레는 태양광 발전 단가 급락, 풍부한 일사량 조건을 통해 이미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해 보조금 없이도 타 발전원 대비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한 시장이다. 이에 따라 자생적 시장 성장이 기대되며 태양광 수요는 2017년까지 4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에너지는 이번 칠레 진출을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첫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운영관리(O&M) 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 구도로 중남미 시장에서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스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은 칠레 중부의 수도권 지역에서도 약 33.9MW급 규모의 프로젝트 인수계약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체결한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양사는 내년까지 칠레에서 50~100MW 규모의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설계, 조달, 시공(EPC)을 원스톱으로 맡게 된 에스에너지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된 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수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혜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스에너지 주가 추이
(단위: 원)



권태성 기자 tskwon@

공시돋보기

바이오로그 투자 회수하는 前최대주주들

한빛·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지난달 조합해산후 지분 매각
이재선 대표로 최대주주 변경
주가 한때 2000원대까지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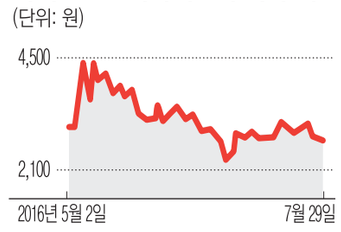
바이오로그디바이스의 전 최대주주였던 UBI-HBIC신기술조합1호가 해체된 가운데, 이 조합을 만든 한빛인베스트먼트와 유비쿼스인베스트가 바이오로그 지분을 처분하며 투자를 회수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빛인베스트먼트는 27일 바이오로그 주식 190만 주(지분 6.94%)를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에 시간외매매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처분 후 보유주식은 91만6056주(지분 3.34%)이며 처분단가는 2820원이다. 거래일 바이오로그디바이스 주식 종가는 2770원이다.

앞서 한빛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10일에도 바이오로그 150만 주(5.48%)를 주당 3200원에 미래에셋대우증권에 시간외매매했다. 유비쿼스인베스트도 지난달 14일 바이오로그 주식 50만 주(1.83%)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주당 매각단가는 3200원이다.

유비쿼스인베스트와 한빛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공동으로 UBI-HBIC신기술조합1호를 설립해 바이오로그의 전신인 비엘디를 인수했다. 이후 바이오로그는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증자 후 바이오로그는 지난해 교보3호스팩과 합병을 결정했다. 합병 후 UBI-HBIC신기술조합1호는 바이오로그의 주식 2040만2512주를 받으며 80%의 지분을 가지게 됐다.

바이오로그디바이스 주가 추이
(단위: 원)



UBI-HBIC신기술조합1호가 지난달 초 해산하면서 조합에 출자한 출자자들은 바이오로그 지분을 출자비율만큼 나눠 가졌다. 유비쿼스인베스트와 한빛인베스트먼트는 각각 214만 5271주, 431만6056주씩 받았다. 조합 해산에 따라 바이오로그의 최대주주는 이재선 대표 외 3명으로 변경됐다.

바이오로그의 전 최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오로그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 한때 447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조합이 해체되며 최대주주가 변경된 지난달 8일 3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빛인베스트먼트와 유비쿼스인베스트가 지분을 처분한 6월 10일, 6월 14일, 7월 27일 주가는 각각 종가 3280원, 3245원, 2770원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바이오로그는 비엘디를 전신으로 2012년에 설립된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부품 중 자동초점(AF)·손떨림보정장치(OIS) 모듈을 연구·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포스코대우, 암바토비 니켈광산서 철수

컨소시엄 참여…1500억 투자
니켈값 하락에 매년 손실 막대

포스코대우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입힌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

포스코대우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DMSA/ASMA) 투자를 위해 가입했던 한국암바토비컨소시엄(KAC)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KAC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한국 업체들이 만든 컨소시엄이다.

포스코대우는 2006년 한국광물자원공사, STX와 KAC를 구성해 암바토비 니켈 사업에 참여했다. KAC는 포스코대우가 지분 14.5%를 가지고 있고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가 81.8%, STX가 3.7%를 가지고 있다.

광산 자체는 캐나다의 쉐리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40.0%, 일본의 스미토모 코퍼레이션이 32.5%, KAC가 27.5%를 보유 중이다. 포스코대우는 2006년 10월 2.75%의 지분을 투자했다. 2010년 5월 경남기업 보유지분 중 1.25%를 인수해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약 1500억 원을 투자했다.

암바토비 광산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세계 3대 라테라이트 니켈 광산 중 하나로 향후 30년 동안 연간 6만 톤의 니켈과 5600톤의 코발트가 생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2년 초 톤당 2만 달러가 넘던 니켈의 가격은 매년 급락했고, 지난해 말 8000달러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1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이에 대한 손실충당금으로 2014년 200억 원, 2015년 735억 원을 회계에 반영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삼천리, 자회사 에스파워 매각 추진

지분 51% 처분…LNG발전 부진 탓
'2대주주' 남동발전 우선매수권 보유

삼천리가 화력발전 자회사인 에스파워 매각을 추진 중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천리는 보유하고 있는 에스파워 지분 51%(1377만 주) 인수를 한국남동발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발전은 에스파워 지분 4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삼천리가 에스파워 지분을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

삼천리가 에스파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LNG발전소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LNG발전소 가동률은 26.1%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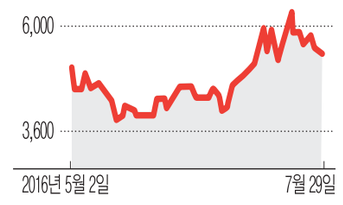
삼천리 관계자는 "현재 에스파워 매각을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정부 측 승인 등 과정들이 남아 있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삼천리에 에스파워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28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9일 12시까지다.

김범근 기자 nova@

이큐스앤자루 주가 추이
(단위: 원)



마스크팩·수분크림… 이큐스앤자루, 중국에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쇼핑몰 및 아웃렛 전문기업 이큐스앤자루가 의류, 잡화에 이어 중국에 첫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유통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

이큐스앤자루는 중국업체(Weihai Seongse Foreign Trade Service co.,LTD)와 30억5000만 원 규모의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에 공급되는 상품은 마스크팩, 수분크림, 각종 기초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상품이다. 이번 계약은 이큐스앤자루가 지난 19일 인수한 중국 화장품 유통 전문기업 'JK인터내셔널' 인수 후 첫 거래 매출이다.

JK인터내셔널은 화장품 수출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중국 최대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인 'JUMEI(주메이)'에 한국산 화장품을 가장 많이 공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기업이다.

이큐스앤자루는 이번 계약으로 중국에 공급하고 있는 의류, 잡화에 이어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확보해 중국 유통사업 다각화에 성공했으며 향후 다양한 협력사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중국 내 한국 상품 유통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큐스앤자루는 이미 오렌지팩토리를 통한 의류, 잡화 유통망 및 JK인터내셔널을 통한 화장품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중국 아웃렛도 가시화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중국 시장 안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큐스앤자루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산 화장품 공급에 성공하며 중국 유통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의류, 잡화, 화장품 외 새롭게 추진 중인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되면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한국산 상품 전문 유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SAMSUNG

Windows 10

갖고 싶은 것을 **가져라**
혜택까지 **쏟아진다**

alleh tv mobile
90일 무료 체험권

PHOTO ALBUM

Year Album
28,000원 상당
무료 제작권 (1권)
50% 할인쿠폰
지금 출력하기

PC 보상판매
특별전
최대 60만원

삼성전자 S'아카데미 PC 썸머 아카데미

삼성 노트북 9 metal 업그레이드 신모델로 S 아카데미가 핫하게 돌아왔다 2016년 7월 6일 ~ 2016년 9월 30일

Event 1 PC 보상판매 특별전 | 삼성 PC 구매 시, 구형 삼성 노트북 반납하면 최대 60만 원 현금 보상 혜택 증정

Event 2 Hot Item 파우치 선물 | 노트북 9 metal 전 모델 '타거스 아트 컬렉션 노트북 파우치' 증정

Event 3 특별 IT 패키지 혜택 | 노트북 + 올인원 PC 패키지 구매 시, 최대 10만 원 상당 혜택
| 올인원 PC 행사 모델 구매 시, 프린터(SCX-1365) 무상 증정

Event 4 썸머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 | PC 행사 모델 구매 시, 후지 필름 Year Album 무료 제작+50% 할인 쿠폰 증정
| 올레 TV 모바일 90일 무료 체험권 증정



삼성 노트북 9 metal

* 본 행사는 행사 매장 내 해당모델 구매 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반납하시는 구형 삼성 노트북의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1대 구매 시, 1대 보상 가능합니다. *매장에 따라 보유 모델 및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혜택의 경우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 대상 및 일부 매장에 한합니다.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 상담사에게 문의 또는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체험판 제품으로 표시되었으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Windows Store 앱은 별도로 판매되며, 앱 종류와 사양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